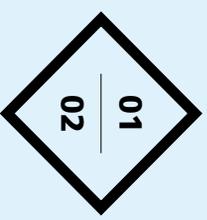


당신만을 위한 1:1 맞춤 저산관리

TWO CHAIRS

JANUARY+FEBRUARY
2026 vol.76





- ☑ 우리금융을 한 곳에 모아 **WON MORE**
- ☑ AI 기술로 **WON MORE**
- ☑ 나 중심 서비스로 **WON MORE**

더 새로워진 금융생활을 위해
우리 **WON** 은

WON MO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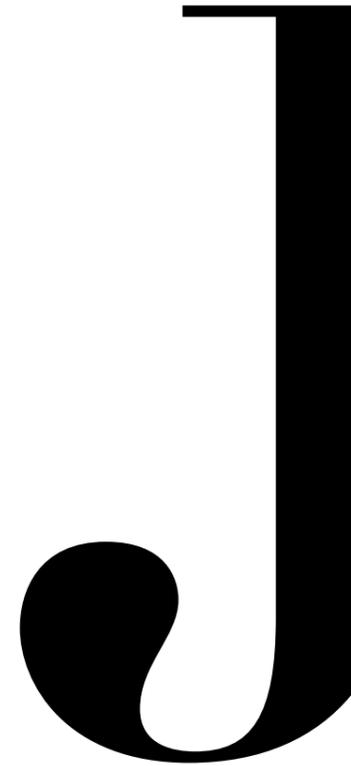


※ 우리WON뱅킹 앱은 사용자의 AOS/OS 버전에 따라 업데이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우리WON뱅킹 앱은 24시간 이용 가능하나 일부 타행 사정에 의해 시간에 제약을 받는 서비스가 존재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우리은행 영업점이나 고객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588-5000, 평일 09-18시, 주말/공휴일 제외)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5-1074(2025.02.07~2026.02.13)



January and February

2026: The New Journey



새해가 밝았습니다.

〈TWO CHAIRS〉 1+2월호에서는 다음 세대에 물려줄 유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를 축적하는 것을 넘어 그 부를 어떻게 의미 있게 사용하고, 다음 세대로 전달할 것인가에 대해 조망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 즉 가문의 정신, 리더십, 사회적 책임 의식 같은 대를 잇는 철학 등을 살펴봅니다. 이번 호에서는 아름다운 겨울 풍경의 정수를 만끽할 수 있는 스위스와 국내 겨울 여행지 풍경, 올 2월 말에 개최하는 겨울 최대 글로벌 축제인 2026 밀라노·코르티나답페초 동계 올림픽 소식, 골퍼들의 로망으로 꼽히는 스코틀랜드의 세인트앤드루스 링크스에 관해 살펴봅니다.

2026년 〈TWO CHAIRS〉와 함께하며 여유로운 휴식과 빛나는 성취가 공존하는 풍요로운 새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Special Theme

- 06 ESSAY**
나 혼자 편안하게 사는 길을 택하지 않았다
간송 전형필
- 08 VIEW**
It's my pleasure!
- 14 FOCUS**
세계적 명문가가 전하는
위대한 유산
- 18 HOW TO**
일상에서 기적 만들기
Let's Fun-donation!
- 20 SENIOR TREND**
미래를 위해 심는 희망의 씨앗
유산 기부 실태

Trend

- 24 CONCERT**
New Year Concerts
Around the World
- 30 TRAVEL**
찾는 이만 누릴 수 있는 순도 100% 알프스의
진짜 얼굴 Switzerland
- 36 LOCAL TOUR**
자연의 고요 속에 머물다
지금 가장 아름다운 겨울 풍경
- 40 ARCHITECT**
드러냄 없이 환경에 스며든 건축
2025 세계건축페스티벌
- 46 ISSUE**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 50 GOLF**
골프의 영원한 '성지'를 가다
St. Andrews Links



- 56 GOLF LESSON**
많은 아마추어 골퍼의 고민
어프로치 정타, 세 가지만 기억하자!
- 60 WHAT'S UP**
2026 트렌드 미리보기
- 64 EXHIBITION**
인상주의에서 모더니즘까지
빛이 예술로 바뀐 순간
- 68 PEOPLE & BOOKS**
독서광 박찬욱 감독의 책 읽고 만든 영화,
영화로 만들고 싶은 책
- 70 HEALTH**
혈당치가 조금 높으시네요



Wealth

- 74 INVESTMENT**
AI 시대, 고용 없는 성장이
가져올 변화
- 78 REAL ESTATE**
부동산 AI 추정가,
신뢰할 수 있을까
- 82 TAX STORY**
2026년 주택 보유세,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
- 88 BUSINESS REPORT**
기술에 취향을 담다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 리포트
- 92 READERS LETTER**



발행 및 편집인 하영춘 발행처 (주)한경매거진엔북
 발행일 2026년 1월 1일 · 1·2월호 제11권 제1호(통권 제76호)
 디자인·인쇄 (주)한경매거진엔북
 등록번호 서울 중 마00097

격월간 <TWO CHAIRS>는 (주)한경매거진엔북이 우리은행 PB고객 멤버십 서비스를 위해 제작하는 매거진입니다.
 격월간 <TWO CHAIRS>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강령·잡지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하며,
 이 책에 실린 어떤 내용도 무단 복제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TWO CHAIRS>에 실린 글은 모두 필자 개인의 의견에 따른 기사입니다.
 ※ 매거진 수신 거부 및 주소 변경을 원하실 경우, 우리은행 거래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88-5000)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Welcome to TWO CHAIRS

우리은행의 역사와 전문성이 만나 탄생한 TWO CHAIRS는 종합 자산 관리 은행을 지향하는
우리은행의 프라이빗 बैं킹 브랜드입니다. **자산관리 전문가**와 **세무&부동산 전문가**가
고객님의 금융 니즈에 맞는 종합 재무 솔루션을 제공해드립니다.
고객님의 금융 플랜 전반에 최적의 해답을 드리는 평생 파트너로 함께하겠습니다.



01 자산관리 전문가 그룹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자산관리 전문가들이 글로벌 투자전략과 전망에 기반하여 주식, 채권, 달러를 포함한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고, 정기적인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객의 투자목적에 적합한 맞춤형 포트폴리오 상담을 통해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안정적으로 증식할 수 있는 최적의 금융 서비스를 추구합니다.



02 세무 전문가 그룹

절세(양도, 소득, 상속) 방안과 지방세, 간접세, 법인세 관련 상담 및 세금 관련 상담 등을 통해 복잡한 세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상속·증여 및 기업 승계 등 세금 관련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로 고객님의 성공을 뒷받침합니다.



03 부동산 전문가 그룹

주택 임대차계약 상담부터 매수와 매도, 보유 부동산의 진단, 가치증진 방안과 투자분석까지 우리은행의 부동산 전문가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풍부한 부동산 투자 정보와 다양한 실무 경험을 겸비한 전문가들이 국내를 넘어 해외부동산 투자의 성공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SPECIAL

부를 넘어선 가치

‘유산^{Heritage}’은 단순히 물려받은 유형의 재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유산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를 포함합니다. 세계적 부호들은 어떻게 그들의 유산을 남기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지 알아봅니다.

나 혼자 편안하게 사는 길을 택하지 않았다 간송 전형필

일찍부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간송 전형필.

문화재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온 인생을 건 조선 최고 부자,
간송의 입을 빌려 되새겨본 부의 진정한 의미.

Editor_ 유나리 Photo_ 한경DB, 간송미술문화재단

“기필코 이 위대한 문화유산들이 흩어져
사라지지 않도록 모든 것을 바쳐 지켜내리라.
이것이 금생에 내게 맡겨진 의무이다.”

나 간송 전형필^{1906~1962}은 금수저를 입에 문, 날 때부터 부자였소. 1906년 서울 종로구에서 전영기의 차남으로 태어날 당시 우리 집안은 증조 때부터 종로4가의 상권을 장악한 10만 석 대부호였으니.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는 부와 권력을 가진 계층이 그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라던데, 내가 살던 시절엔 그런 단어는 없었지만 나에겐 너무나 익숙한 거라오. 아버지는 내가 어릴 때부터 “나라 잃은 백성을 도와주는 변호사가 돼라”고 하셨지. 23세에 집안의 부를 모두 상속받은 내 재산의 규모를 조금만 훑어볼까. 상속받은 부동산 중 논외 면적만 800만 평, 여의도 면적의 10배 크기였다오.

당시 많은 재산을 가진 이들이 일본에 헌납하는 친일을 하거나, 주색잡기에 빠져 나라 잃은 설움을 달랠 때 나는 바로 지금이 큰 꿈을 실현할 때라고 생각했소. 나는 우리 조국이 반드시 독립할 것이라는 신념이 있었고, 문화재나 예술품 등을 약탈하며 우리 민족의 문화와 정신을 말살하려는 일제의 정책에 저항하겠다고 굳게 마음먹고 온 재산을 털어 문화재를 사 모으기 시작했소. 세종 때 인쇄된 훈민정음해례본, 고려청자상감운학문매병 등 지금은 내가 모은 것 중 12점이 국보, 10점이 보물, 4점이 서울시지정 문화유산이 됐소. 고려청자는 경매로 나온 것을 샀는데, 당시 2만원 돈이었소. 그 돈으시면 서울에 기와집 20채를 살 수 있었다오.

나는 누군가 골동품을 팔려고 오면 절대 값을 깎지 않았소. 오히려 부르는 값의 2배를 주었지. 좋은 문화재를 소개해준 사람에게도 사례를 아끼지 않았고. 훈민정음해례본을 증개해준 이에겐 1,000원을 주었어. 당시 서울 시내

의 좋은 기와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돈이라네. 이런 후한 인심은 좋은 물건이 제 발로 찾아오게 만든다오. 이렇게 모은 것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1938년 서울 성북구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사립 미술관인 ‘보화각(현 간송미술관)’을 설립해 미술사 연구도 이어갔소. 인생 말년엔 문화재 구입과 폐교 위기에 있던 중학교를 구입하는 데 남은 재산을 다 썼지.

나의 부는, 아니 우리 집안의 부는 나만의 것이 아니오. 막강한 부로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면 그것을 사회에 돌려주는 것은 당연지사. 아직 내 뒤를 이을 한국 대표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떠오르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소.

우리의 현재는 어떠한지 한번 볼까? 지난 2022년까지 국내의 기부금은 총 15조1,000억원이 넘는다고 알고 있소. 재미있는 것은 기업(4조4,000억원)보다 개인(10조7,000억원)이 2배 이상 많이 나눈다는 점이오. 개인의 평균 기부액은 2023년 기준으로 26만원가량이라는군. 적지 않은 돈이오. 요즘은 사람들의 의식 수준도 많이 변했소. 사회적 책임감, 동정심, 행복감, 도움을 갖고 싶은 마음 등 다양한 나눔의 이유 중에서 2000년대 초반엔 동정심이 압도적 1위였으나, 요즘은 ‘사회적 책임감’이 주요 동기로 하더군. 그러니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시오. 나는 시간과 역사가 담긴 문화재 수집에 한평생을 바쳤지만, 모두 나와 같은 일을 해야 하는 건 아니니 말이오. 내가 남긴 유산이 세대를 거둬주는 것처럼 우리 안의 큰 뜻과 선의는 꺼지지 않고 이어지지 않겠소? 나는 그렇게 믿는다오. ●



메트로폴리탄은 매년 미술관 의상연구소 운영 자금 마련과 연례 전시회 개막을 기념해 1948년부터 대규모 모금 행사인 '멧 갈라'를 개최하며 기부 명맥을 잇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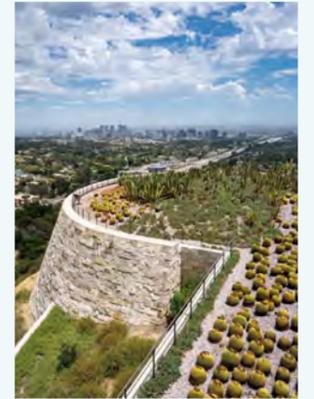
It's my pleasure!

여기, 아주 통 크게 모두를 위해 자산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예술, 공공의료, 교육 등 인간의 안과 밖을 살찌우는데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것이다.

Editor_유나리 Photo_솔로몬 R. 구겐하임 미술관, 게티 미술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언스플래시, 한경DB



프리츠커상 수상자인 리처드 마이어가 12년에 걸쳐 완성한 미술관. 약 1조원이라는 천문학적 비용을 들여 산꼭대기까지 찾아올 가치가 있는 미국의 명소로 만들었다.



1



예술 나눔의 시초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은 미국에서 가장 큰 미술관으로, 300만 점 이상의 예술품을 소장하고 있다. 이곳이 남다른 또 하나의 이유는 철저하게 민간인의 '기증'으로 탄생했기 때문이다. 1866년 미국 독립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미국인들이 "이제 우리도 대영박물관이나 루브르 박물관 같은 미국 대표 미술관 하나쯤은 필요하지 않겠나"라며 십시일반 기부금과 기증품을 모아 만들었다. 왕실 보관품이나 제국주의 시대 약탈품을 버젓이 걸어둔 미술관과는 시작과 의도, 소장품부터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1870년 문을 연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일명 '더 멧The Met'은 미국이야말로 대중이 수준 높은 예술을 누릴 수 있는 곳이라는 자부심을 심어줬고, 뉴욕을 세계 문화의 중심지로 만들었다.

2



억만장자가 남긴 미술 낙원

진폴게티-게티 미술관
Getty Museum



미국 최대 석유 재벌이던 진 폴 게티Jean Paul Getty, 1892~1976는 다른 영역에선 소문난 구두쇠였지만, 미술품은 광적으로 수집했다. 20대 초 이미 막대한 부를 거머쥔 그는 LA에 게티 빌라Getty Villa와 게티 센터Getty Center라는 2개의 보석 같은 미술관을 남겼다. 사망 후에도 7억 달러가 넘는 유산을 미술관에 기부하고, 소장품과 부동산 등을 모두 게티 재단 Getty Foundation에 넘겼다. "지구가 멸망해도 게티의 수장고만 무사하다면 인류의 역사를 새로 쓸 필요가 없다"라는 말까지 남겼다. 이 말은 결코 허황된 수사가 아니다. 재단은 미술뿐 아니라 출판, 음악, 예술교육 등 전 세계 예술가와 연구자 간 네트워크를 만들어 레지던시와 연구비 등을 지원하며 인류가 새로운 역사를 쓰도록 지속적으로 돕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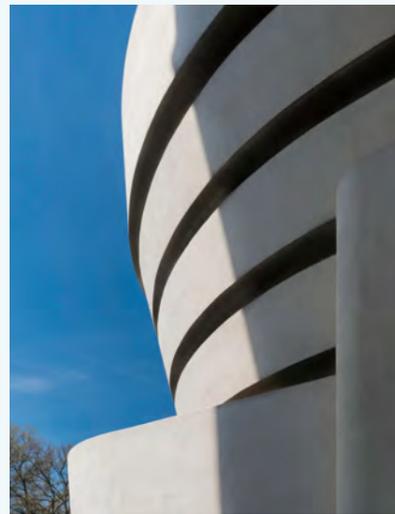
3



현대미술의 수호자

페기 구겐하임- 솔로몬 R. 구겐하임 미술관
Solomon R. Guggenheim Museum

예술을 사랑한 대표적 자선가 중 한 명이자 현대미술사를 논할 때 빠질 수 없는 인물이 바로 페기 구겐하임(Peggy Guggenheim, 1898~1979)이다. 광산 사업으로 막대한 부를 일군 구겐하임 가문 출신인 페기는 아버지가 타이태닉호 침몰로 사망한 이후 예술에서 마음의 울타리를 찾았다. 페기는 당시 예술이 부흥하던 파리를 찾아 뒤샹 등 현대미술 작가와 친구가 됐고, 피카소·브랑쿠시 등의 작품을 접하며 안목을 키워나갔다. 나치 집권기에 미로, 칸딘스키, 마그리트, 피카소 등의 걸작 170여 점을 사들인 후 미국으로 들어오며 나치로부터 작품을 보호했다. 또 잭슨 폴록에겐 생활비를 대주며 작업 활동을 후원해 추상미술이 꽃피게 했다. 이후 페기는 자신이 평생 지키고 경험해온 예술이 사라지지 않도록 삼촌이 설립한 구겐하임 재단에 소장품을 기증했다.



1959년에 지은 미술관은 근대 건축의 거장으로 꼽히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작품. 미국 근대건축물로는 최초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Jenny Holzer, Artists Rights Society (ARS) © Solomon R. Guggenheim Foundation, New York



4



누구나 읽을 권리가 있다

앤드루 카네기-카네기 재단
Carnegie Corporation of New York

앤드루 카네기(Andrew Carnegie, 1835~1919), 찢어지게 가난한 스코틀랜드 출신 이민자로 철강 왕 자리에 오른 사람. 그는 어린 시절 책 400여 권을 소장한 이웃집에서 토요일마다 책을 빌려 읽으며 새로운 세계를 엿봤다. 이때의 경험은 “마치 감옥 벽에 열린 창문 틈으로 지식의 빛이 흘러 들어오는 듯”했다. 이것이 전성기 시절 인류 역사상 세 번째로 많은 자산을 그러모은, 자본주의의 화신 같은 그가 ‘도서관의 수호성인’이라 불리며, 에세이를 통해 “부자가 가진 여윌돈은 사회가 잠시 맡겨둔 것이며, 그 돈은 살아 있는 동안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쓰여야 한다”라는 말을 남긴 이유가 아닐까. 그는 인생 말년인 1901년 회사를 매각한 뒤 재단을 설립해 본격적인 사회사업을 시작하며 다른 행보를 보였다. 특히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교육. 1881년 이미 스코틀랜드 덤프리스에 도서관을 기증한 것을 시작으로 재단을 통해 전 세계 2,509개의 공공 도서관을 건립하는 데 약 5,600만 달러(830억원)가 넘는 돈을 기부했다. 그는 빈곤 문제를 줄여주는 일시적 정책 대신 불평등의 원인을 진단하고 제도로 보완하는 구조의 역할을 강조했다. 카네기 재단은 미국의 공공 도서관 건립, 어린이 프로그램 ‘세서미 스트리트’, 저소득층 대학생에 돕는 장학금, SAT 시험 등 상관없어 보이는 프로그램과 제도 재정을 후원했다. 현재까지 약 45억 달러(6조원) 규모의 기금을 운용하며, 해마다 1억7,000만 달러(2,517억원)가 넘는 자금을 집행하는 미국 대표 사적 재단으로 자리 잡았다.



앤드루 카네기가 기부해 지은 미국 각지의 공공 도서관들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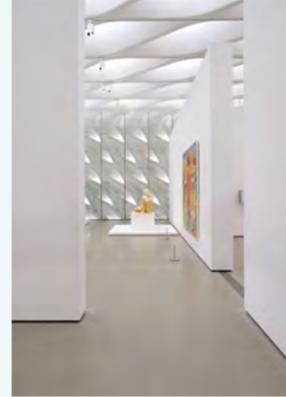


전 세계 빈곤과 질병 퇴치
보건 향상이 목표
|
빌 게이츠-게이츠 재단
Gates Foundation



경제성장과 함께 인류는 전반적 교육과 복지 인프라를 높이는 데 성공했지만, 또 다른 그늘을 만들어냈다. 바로 빈민국이라는 소외된 나라의 어린이, 여성 등 아주 짙고 어두운 그림자 안에 있는 존재들. 세계 최대 부호 중 하나인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Bill Gates, 1955~)는 ‘부자로 죽지 않겠다’는 다짐 아래 전 세계 열악한 보건과 교육, 기후변화, 빈곤 등 자본주의의 다양한 그림자와 싸운다. 이제까지 세계 보건 향상을 목표로 세계백신면역연합(GAVI)과 함께 글로벌 펀드 설립 등을 지원하며 11억 명의 아동에게 필수 백신을 제공했다. 앞으로 20년간은 치명적 전염병의 완전 퇴치, 예방 가능한 원인으로 인한 아동·임산부 사망 방지 등에 집중할 예정이다. 또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 농업, 디지털 인프라 등을 활용한 연구 개발을 지속한다. 빌 게이츠는 전 세계적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더 많은 부자가 더 빠르게 기부해야 한다”고 일관된 목소리를 내며 연대도 재촉한다.

빌 게이츠는 2045년까지 2,000억 달러에 달하는 재산을 모두 소진해 기난한 나라의 질병 퇴치를 약속했다. 게이츠 재단은 개발도상국에 백신을 공급하는 비영리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도심 속 새하얀 별집으로도 일컫는 브로드 미술관은 특히 제프 쿤스, 앤디 워홀 등의 작품을 독립된 갤러리에 전시할 만큼 현대미술 작품이 풍성하다.

6



문화로 도시 얼굴을
바꾼 LA의 메디치
|
일라이 브로드-브로드 미술관
The Broad



건설업과 보험업으로 막대한 부를 일군 억만장자 일라이 브로드(Eli Broad, 1933~2021)는 LA의 얼굴을 바꾼 ‘LA의 메디치’로 일컬어진다. 5년 이상 건축이 멈춰 도시의 흉물이 되어가던 디즈니홀 건축을 위해 집요하게 모금 운동을 펼쳤고, LA 현대미술관(MOCA)과 LA카운티 뮤지엄 등 다양한 미술관 건립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LA오페라가 바그너의 ‘링 사이클’을 무대에 올릴 수 있게 600만 달러를 쾌척하기도 했다. 그는 문화의 불모지에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수준 높은 문화시설을 다수 만들며 한 도시의 문화 환경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열정적 수집가이기도 했던 그는 1984년 브로드 미술 재단을, 2015년엔 소장품을 전시한 현대미술 갤러리인 더 브로드를 설립했다. 1999년엔 교육 재단을 세우며 공교육 발전을 지원했고, UCLA나 하버드 등 유수의 대학에 연구 자금도 지원했다. 부자의 사회적 책임에도 관심이 많았다. 2019년엔 <뉴욕타임스> 기고문에 “나는 1%에 속하는 사람이다. 제발 나의 세금을 인상해달라”고 쓰기도 했다. ☹



세계적 명문가가 전하는 위대한 유산

나눔을 통해 부의 사회적 가치를 제대로 지켜온 명문가에서 배우는 자녀 교육의 다섯 가지 원칙. 이 원칙들이야말로 진짜 위대한 유산이다. 이 유산 없이 막대한 부는 진정한 가치와 사회적 효용을 지닐 수 없기 때문이다.

Editor 유나리 **Photo** 국가유산청, 게티이미지뱅크, 리카싱 재단, 언스플래시, 한경DB
Reference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세계 명문가의 자녀 교육>(최효찬 지음, 예담), <5백 년 명문가의 독서 교육>(최효찬 지음, 한솔수북)

1

때로는 손해 볼 줄도 알아야 한다
'나'만 생각하면 결국 실패한다

조선 선조 때 의령현감을 지낸 운악 이함 중가의 사훈은 '치고 밀저라'였다. 예나 지금이나 자기 것을 내주기 힘든 시대에 색다른 신조다. 이는 당장은 손해를 보더라도 빚졌다는 마음을 상대에게 남겨두면 나중에 더 크게 돌려받을 수 있다는 가르침이다. 일명 '상생의 처세술'이라 할 수 있다. 상대방과 더불어 성공해야 진짜 성공이며, 더 큰 목표를 위해 작은 손해에 크게 연연하지 않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담고 있다. 그릇이 커야 더 많이 채울 수 있고, 채우기만 하면 언젠가는 넘친다. 이 절묘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2

강인한 정신과 양심을 길러라
사회에서 자질을 검증받아야 한다

발렌베리Wallenberg 가문은 스웨덴의 대표 명가다. 스웨덴 정부는 장관 등 고위직 인사를 임명할 때나 정책을 입안할 때 발렌베리 가문의 의견을 묻고 반영한다. 발렌베리가 소유 기업들의 총매출은 스웨덴 국내총생산GDP의 30%에 달한다. 이렇게 한 국가 안에서 영향력이 큰 가문임에도 왜 스웨덴 국민의 사회적 저항이 작은 걸까? 이는 이들이 철저히 사회 안에서 활동하고 돌려주는 '기업의 생존 토대는 사회'라는 기본 신념 아래 움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념은 자녀 교육에도 배어 있다. 이들은 어린 자녀에게 특권보다 의무와 책임부터 가르친다. '존재하지만 드러내지 않는다'는 가문의 motto 아래 대중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

고, 미디어에 조명되는 것을 금지한다. 그 결과 발렌베리 가문이 탈세나 사생활 문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다. 대신 사회 공동체가 위기에 처하면 모습을 드러내는데, 자신들이 지닌 영향력을 이때 행사하는 것. 그 외에는 철저히 사회 안에서 잠행한다. 이런 가문의 후계자가 되려면 사회 안에서 자신의 능력을 검증해야 한다. 후계자는 반드시 혼자 힘으로 명문대를 졸업하고, 해군사관학교를 나와야 한다. 바다라는 거친 현장을 경험하며 도전 정신, 위기관리 능력, 다른 군인과 어울리는 법, 애국심을 키울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를 거치면 런던이나 파리 등지의 국제금융 기업에서 근무하며 국제금융과 산업의 흐름, 사회생활을 배워야 한다. 이 모든 것은 혼자 경험해야 한다. 모든 과정을 거친 후 후계자 자리에 오르면 매년 그룹의 이익금 85%를 법인세로 내 사회에 환원한다. 재단의 수익금으로는 대학, 도서관, 박물관 등을 건립해 모든 사회 구성원이 혜택을 보게 한다.



1924년 촬영한 발렌베리 일가

3

사회적 책임을 새겨라 부자는 혼자서 존재할 수 없다

사회 고위층에 요구하는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한국형 원형은 조선시대 경주 교동 최씨 집안에서 찾을 수 있다. '경주 최 부잣집'으로 알려진 이들은 300여년간 12대를 이어 대대손손 부자였고, 그 부를 잘 나누는 것으로 유명했다. 지금도 남아 있는 경주 교동의 최 부잣집에는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 벼슬을 하지 마라', '만석 이상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라', '흉년에는 땅을 늘리지 마라',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주변 100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며느리는 3년간 무명옷을 입어라'는 여섯 가지 육훈^{六訓}이 아직도 걸려 있다. 이 여섯 가지 가르침은 3대 가가 어렵다는 부가 12대를 이어 온 이유 중 하나일 터. 이들이 실천한 사회 환

원 활동을 살펴보자. 최 부잣집의 2대 부자 최동량은 많은 재산을 물려받아 땅을 구입했고, 뒤를 이은 3대 최국선은 흉년이 들어 농민이 빌려간 쌀을 갚지 못하자 자기 아들 앞에서 농민들의 담보 문서를 모두 없애고, 죽을 썬어 배끓는 이웃에게 푸짐히 나눠줬다. 보릿고개 시절엔 100석의 쌀도 베풀어 나눴다. 이렇게 덕을 쌓은 덕분에 최 부잣집 소작농이 되려는 이들이 줄을 이었다. 부자의 재물을 빼앗아가 난한 이들에게 나눠준 활빈당이 활개를 치던 시절에도 최 부잣집은 살아남을 수 있었다. 부와 함께 덕을 쌓아야 진정한 부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일찍부터 깨달은 혜안 덕분이다. 이런 가풍은 교육으로 철저히 이어졌다. 최 부잣집의 명맥이 12대에서 멈춘 이유도 결코 사소하지 않다. 일본에 나라를 빼앗겼던 12대 최준 시기에 '나라가 없으면 부자도 없다'라는 신념으로 독립 자금을 마련해 내놨다. 광복 후에는 교육 사업에 전 재산을 기부하기도 했다. 이들의 부가 민족의 미래를 밝혀주는 불씨였음은 말할 것도 없다.

최 부잣집의 2대 부자 최동량은 많은 재산을 물려받아 땅을 구입했고, 뒤를 이은 3대 최국선은 흉년이 들어 농민이 빌려간 쌀을 갚지 못하자 자기 아들 앞에서 농민들의 담보 문서를 모두 없애고, 죽을 썬어 배끓는 이웃에게 푸짐히 나눠줬다.

- 1. 최 부잣집 안채 전경
- 2. 최 부잣집은 기근이 들거나 보릿고개가 오면 공간을 열어 사람을 살렸다. 5~6동의 공간체 중 현재는 사진 속 한 곳만 남아 있다.



워런 버핏은 하루에 총 6종류의 신문을 읽는다.

5

부모가 먼저 본을 보여라 삶의 원칙은 자연스레 세습된다

아시아 최고의 부자이자 자선사업가인 리카싱 Li Ka Shing의 아버지는 평생을 검소하게 살다 떠났고, 리카싱에게 한 푼의 유산도 남기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생전 자급자족하며 청렴하게 사는 삶을 실천했고, 이를 아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음에도 리카싱에게는 삶의 기본이 됐다. 또 어렵게 자란 리카싱은 젊어서 경험한 고생이 자신의 성공 이유 중 하나라고 여겨 자녀들에게도 좋은 교육 환경은 제공했지만 고생도 기꺼이 하게 했다. 아이들에게 "먼저 인간이 돼라"고 입버릇처럼 가르치면서 유학 간 자식에게 충분한 용돈을 주지 않았으며 차도 사주지 않았다. 맥도날드에서 아르바이트하고 골프장에서 공을 줍는 아르바이트로 용돈을 버는 평범한 유학생의 삶을 살게 했다. ●

4

책을 읽혀라 나를 위한 가장 쉬운 투자 방법 독서

'인간 됨'을 먼저 배우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 그래서 명문가들은 한결같이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독서는 단순히 학문의 기초를 쌓는 것을 넘어 훌륭한 인간이 되는 데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추는 쉬운 방법이기 때문이다. 책을 통해 지식을 쌓고 타인의 삶을 상상하며 물질로 헤아릴 수 없는 무형의 세계를 배운다. 이항은 아들과 손자들에게 1,300여통의 편지를 써 보낼 정도로 교육열이 강했고, 이익은 조부모와 아버지가 중국에서 수천권의 책을 사온 덕분에 실학자가 될 수 있었다. 세계적 투자가 워런 버핏은 아직도 매일 5~6시간씩 독서를 한다. 버핏이 이렇게 책을 열심히 읽는 이유는 간단하다. 독서가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는 "최고의 투자는 자기 자신에게 하는 투자이고, 자신에게 하는 투자 중 최고는 책과 신문 읽기"라며 독서를 통한 끊임없는 배움을 강조한다. 버핏은 "지식은 복리처럼 쌓이는 것"이라며, 꾸준히 지식을 확장한 덕분에 60여년간 다양한 산업에 투자할 지식의 원천을 쌓을 수 있었다. 막대한 부를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겠다고 선언한 버핏이 자식에게 물려준 인생 조언 역시 바로 "Read^{독서}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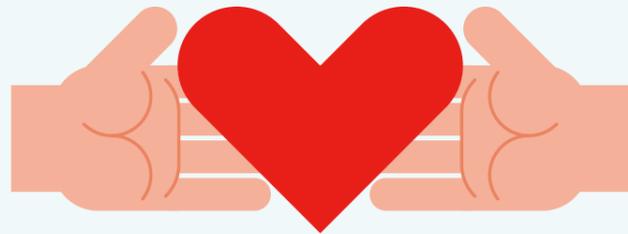


리카싱은 홍콩 최고의 갑부이지만 10년 된 양복을 입고 3만원짜리 세이코 시계를 착용하는 검소한 생활로 유명하다.

일상에서 기적 만들기 Let's Fun-donation!

기부는 로마 시대 귀족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에서 시작됐다. 공동체의 번영을 위해 모두가 한배를 탔다는 사명 의식에서 시작한 기부가 꼭 거창할 필요는 없다. 사소하고 즐겁게 나눔을 실천하는 방법도 많다.

Editor_유나리 Photo_게티이미지뱅크
Reference_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즐겁다는 뜻의 '펀(Fun)'과 기부를 뜻하는 '도네이션(Donation)'이 결합한 '퍼네이션(Funation)'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재미있는 방법의 기부를 일컫는다. 이는 갑자기 등장한 개념은 아니다. 특정 번호로 전화를 걸면 기부가 되는 자동전화모금ARS 사례를 떠올려보자.

요즘은 웹이나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해 게임과 운동을 하거나 특정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 행위 등 다양한 일상에 보

상 개념을 더한 퍼네이션이 성행하고 있다. 달리기 열풍에 힘입은 일명 '기부런'이라 부르는 러닝 챌린지 기부나 스마트폰 잠금 화면 등을 통해 광고를 보거나 게임을 하면 포인트를 주는 리워드형 앱 등이 흔하다. 와디즈, 텀블벅 같은 클라우드 펀딩은 공익 목적인 기부 펀딩의 주요한 수단 이 된 지 오래다.

기업도 퍼네이션에 열심이다. 삼성전자나 LG 등의 대기업은 사원증을 찍으면 자동으로 기부되는 키오스크형 근태 기부틀, 빙그레는 참가비 전액을 대회 개최 지역에 기부하는 자전거 경주 대회인 '빙그레 그란폰도(Gran Fondo)'를 연다. 카카오는 사회 공헌 플랫폼 '카카오같이가치'를 만들고, '따뜻한 연말, 트리를 부탁해'라는 퍼네이션도 진행했다. 카카오톡 채팅방에 '따뜻한 연말'이라는 문구를 입력하면 뜨는 기부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카카오가 대신 100원을 사랑의 열매에 기부해준다.

전통적 모금 기관인 사랑의열매도 이런 트렌드에 맞춰 사랑의온도탑 디자인을 '시민의 따뜻한 기부 온기가 굴뚝을 타고 올라간다'는 콘셉트의 굴뚝 모양으로 바꾸고, 온도탑 하단엔 리워드형 기부 존을 만들었다. 카드나 현금·QR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할 수 있으며, 3,000원짜리 키링 뽑기 등을 더해 즐거운 마음으로 손쉽게 기부할 수 있다. 적금 만기 시 선택한 금액만큼 비영리법인에 기부해주는 기부 적금도 선보였다. 소비가 아닌 저축을 통해서도 나눔을 도울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신선하다.

거창한 선의나 의협심이 없어도 누군가를 돕는 것이 일상이 될 수 있는 시대다. 작은 나눔이 눈덩이처럼 큰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시대. 기부 천사로 널리 알려진 연예인 선은 이런 말을 남겼다. "나눔은 마라톤 같아서 혼자인 줄 알았는데 어느새 누군가와 같이 뛰고 있다." 그가 카카오페이와 함께 개최한 기부 마라톤 '2025 룬런'은 국내 러닝 이벤트 중 역대 최다인 26만 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하며 최종 누적 걸음 수 225억 걸음을 달성했다. 카카오페이는 10억 걸음 달성 시 10억원을 기부하기로 했고, 목표를 초과 달성해 총 20억원을 기부했다. 나의 작은 걸음이 큰 결과가 된다는 사실! 오늘부터 시작해보자.

일상 속 퍼네이션 실천법 5

1

쇼핑할 때도



이왕 하는 소비, 의미를 더해보자. 쇼핑하는 플랫폼을 바꾸기만 해도 기부할 수 있다. 국제 환경보호 단체인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만든 기부 앱 'WWF 클리투기부'는 앱 안에서 쿠팡, G마켓, 야놀자 등의 사이트로 연계돼 앱을 거쳐 쇼핑을 하면 일정 금액이 기부된다. 결제할 때 기부하는 방법도 있다. 서울페이플러스 앱에서 지역화폐인 서울사랑상품권을 사면 원하는 금액만큼 상품권을 기부할 수도 있다.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살 경우 기부가 되는 가게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저칼로리 식품 등을 판매하는 무인 편의점 형태의 가게 '제로 스토어' 중 망원성산 디모데점은 운영비를 제외한 순익을 100% 기부하겠다는 목표 아래 오픈했다. 해당 지점은 월드비전에서 16년간 일한 나눔의 달인이 운영한다.

2

걸을 때도



일상에서 기부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 걸을 때 리워드를 쌓아주는 앱을 활용하면 건강과 기부 둘 다 챙길 수 있다. 대표적 앱은 '빅워크'. 앱을 켜고 걷기만 하면 걸음 수가 쌓이고, 다양한 프로젝트 중 골라 걸음 수를 기부할 수 있다. 서울 시민이라면 서울시가 만든 '손목 닥터9988' 앱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 하루 8,000보 이상 걸으면 포인트를 쌓을 수 있으며, 이 포인트는 서울페이머니로 전환해 기부할 수 있다. 지하철을 탈 땀 계단을 이용하고 쌓인 포인트도 기부해보자. 강남구청역 등 특정 지역에 설치된 '아트건강계단'은 계단을 이용하는 사람 수만큼 기부금이 쌓인다. 기부금은 위기 가정 긴급 의료비, 전동 휠체어 충전소 설치, 장애인 이동권 확보 등의 공익사업에 쓰인다. 서울시청 시민청 입구에도 기부하는 '건강계단'이 있다.

3

생활 습관만 바꿔도



생활 습관만 바꿔도 기부할 수 있다? LG화학이 만든 환경·사회·지배 구조를 의미하는 ESG 생활법 실천 기부 앱 '알지?' 이야기다. 앱에 가입한 후 친환경 제품 인증샷 남기기, 바이오 원료 등 친환경 상식 관련 OX 퀴즈 풀기, 착한 소비 후기 남기기 등의 친환경 생활 습관만 들여도 포인트 적립과 기부를 동시에 할 수 있다.

4

단체나 재단의 프로젝트 활용하기



특정 주제나 공신력 있는 구호단체의 움직임에 참여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셰어더밀(ShareTheMeal)'은 전 세계 기아를 위한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의 식사 기부 앱. 탭 한 번이면 1,000원으로 한 끼 식사를 나눌 수 있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기부 플랫폼 '고향사랑e음'에선 태어나고 자란 지역사회에 나눌 수 있다. 기부할 지자체를 선택하고 해당 지자체의 답례품을 구매하면 된다. 세액공제 혜택도 있다.

5

같이 할 사람 찾기



혼자라 엄두가 안 난다면 동행자를 찾으려 된다. 당근 앱을 켜고 '동네생활'에서 '모임'을 클릭해보자. 환경, 돌봄, 취약 계층 지원 등 다양한 주제의 봉사 모임을 찾거나 직접 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다. 지난 2025년 3분기 당근에서 신규 생성된 봉사 관련 모임 수는 전년 대비 약 70%나 증가했다. 취미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생활형 봉사가 자리매김했다는 분석이다. '돌고(DOLGO)'라는 앱에선 기부금을 모금하는 개인 기부 재단도 만들 수 있다. ●





미래를 위해 심는 희망의 씨앗 유산 기부 신탁

내가 쌓아온 과거와 현재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씨앗이 될 수 있다.
유산 기부가 바로 그 방법 중 하나. 요즘은 유산을 기부하는 방법으로
신탁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Editor_유나리 Photo_게티이미지뱅크

유산 기부는 생전에 내가 상속해줄 재산의 일부나 전부를 공익 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현금은 물론 부동산, 주식, 보험, 미술품 등 다양한 자산 유형을 기부할 수 있다. 유족이 장례 조의금을 기부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렇게 기부할 수 있는 자산이 다양해지자 나의 유산이 더 나은 곳에 쓰이길 바라는 마음에 생전 유산을 기부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요즘

시중은행의 유언대용신탁 금액



은 나이가 아주 많지 않아도, 고액 자산가가 아니어도 유산 기부를 고려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생전 유산 기부를 결정하는 나이대도 젊어지는 추세. 초록유산의 조사에 따르면 유산 기부자의 평균 연령대는 2019년 60대 중반에서 2023년 52세까지 낮아졌다. '잘 사는 것'에 대한 고민이 늘었다는 의미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유산 기부 신탁 또한 자연스럽게 인기를 끌고 있다.



신탁에 기반한 유산 기부법으로 유언대용신탁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유산을 나눔으로써 삶의 가치를 남길 수 있다.



사회적 관심 커지는 신탁 활용 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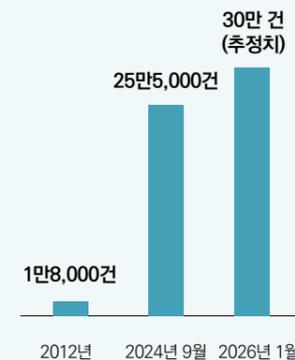
유산 기부는 현금 외에도 유언 공증, 자필 유언장, 신탁, 보험 등 다양한 형태로 참여할 수 있다. 요즘 많이 활용하는 것은 보험과 신탁. 보험 기부는 생명보험의 수익자를 공익단체로 지정해 납부한 보험료가 사후 공익 목적으로 쓰이게 하는 것이다. 신탁 기부는 금융회사와 자산 신탁계약을 체결해 사후 자산의 전부나 일부를 공익단체에 귀속하는 형태다. 이때 더 안전하게, 더 깔끔하게 기부하는 방법으로 은행에 유언장을 남기는 유언대용신탁이 인기를 끌고 있다. 유산을 남기는 가장 일반적 방법인 유언장은 집행 과정에서 해석의 여지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유언대용신탁은 갈등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 중 하나다. 위탁자는 살아 있는 동안 수익자가 돼 신탁 이익을 누리고, 사망 후에는 정해둔 유언대로 자산을 처리할 수 있다. 실제 지난 2025년 9월 시중은행의 유언대용신탁은 2022년 2조541억원에서 2배 이상 증가한 4조1,237억원을 돌파했다. 이용 건수도 증가 추세다. 유언대용신탁 도입 초기인 2012년엔 1만8,000건에 불과했으나 2024년 9월엔 25만5,000건을 돌파, 현재 30만 건을 넘을 것으로 추정한다.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 가능한 유산 기부

국제 구호·개발 NGO인 월드비전은 생의 마지막 나눔을 실천하려는 사람을 위한 '밥피어스 레거시 클럽'을 출범했다. 밥 피어스(Bob Pierce)는 월드비전의 창립자 이름. 그의 이름을 딴 이 유산 기부 특화 서비스를 활용하면 생전 또는 사후에 자산을 취약 계층에 남길 수 있다. 전담 매니저를 두고 법률·세무·금융 등 전문가 상담부터 맞춤형 기부를 설계해주고, 헌정패와 기념 공간에 이름도 올려준다. 이런 서비스 출범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월드비전 후원자의 사례다. 질병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은 후원자는 월드비전과 유산 기부 상담 중 세상을 떠났고, 유가족이 고인의 뜻을 이어 상속 재산 일부를 기부했다. 기부금은 잠비아의 아동교육 사업에 쓰이며, 많은 아이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했다.

이렇게 유산 기부는 단순히 경제적 가치만을 주고받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내가 살아온 인생의 가치, 이루고 싶은 신념을 완성할 수 있는 과정이자 목적지가 될 수 있다. 남은 가족에게는 삶의 방향에 대한 큰 조언도 된다. 이렇게 기부를 통해 삶이 더 큰 빛을 받게 된다. 내가 사라진 자리에 환히 쬐진 빛은 꺼지지 않고 퍼져나가 사회를 더 밝고 따뜻하게 비출 것이다. ☺

유언대용신탁 이용 건수



우리은행 TWO CHAIRS × 가연결혼정보

결혼? 나의 가치 있는 선택
답은 가연



- **제휴서비스:** 「우리은행 × 가연 프레스티지 서비스」주1) 1년 이용 바우처 제공
- **제휴기간:** 24년 9월부터 26년 8월까지 (단, 선착순 100명 마감 시 조기 종료)
- **대상자:** 우리은행 TCE주2) 고객 중 희망고객 (단, 가연결혼정보 남녀 연령조건주3) 충족 限)

- **바우처 신청방법:** 우리은행 영업점 전담 PB/FA 통한 제휴서비스 이용 바우처 신청
- **서비스 가입 절차:** 바우처 수령 후 가연결혼정보 표준약관 및 회원가입절차에 따라 제휴서비스 제공
- **유의사항:**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주4) 및 외국 국적자 서비스 제공 불가, 바우처 양도 및 판매 불가

주1) 프레스티지 서비스: 담당 매니저 2대 1 전담관리, 결혼전제 만남추천, 정회원 전용 파티 초대 등

주2) TCE: 우리은행 고객분류 기준으로 순수개인 금융수신 6개월 평잔 10억이상 고객

(금융수신: 수신+신탁+수익증권(해외펀드포함)+방카슈랑스+청약저축+통장식CD+퇴직연금(DC)가입자적립금)

주3) 연령조건: (24년도 기준) 남성 94년생(30세)~59년생(65세), 여성 99년생(25세)~63년생(61세)

주4) 청탁금지법 대상자: 공무원, 공기업 임직원, 교사/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공무수행사인 및 그 배우자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매칭 만족도 **91.6%**

23년 3월 1일~24년 5월 12일에 프로필 추천 완료한 회원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 [매칭 서비스 만족도 평가] 결과, 총 4개 평가등급 중 상위 2개 등급[매우만족, 만족]을 선택한 비율

가연결혼정보 전담상담센터 | 1666-5314



TREND

세상은 눈으로 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아름다움도 있습니다.
아트, 음악, 건축 등을 통해
마음의 눈을 키워보세요.
더욱 풍성한 인생의 맛과 멋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새해를 여는 세계의 음악회 New Year Concerts



Around the World

새해를 여는 음악회는 전 세계 클래식 애호가들이 가장 기다리는 무대다.

화려한 연주와 함께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이 공연은 단순한 연례 콘서트를 넘어 클래식 음악이 축적해온 전통과 신뢰를 보여주는 상징이 된다. 빈의 왈츠, 베를린의 깊은 울림, 뉴욕의 축제 같은 에너지까지. 이제는 하나의 의식이 된 세계의 신년 음악회를 지금 만나보자.

Writer_ 강은진 Photo_ 고양문화재단, 한경경제신문사, 빈체로, 각 오케스트라 홈페이지



①

동서양이 만나는 새해의 음악 뉴욕필하모닉 설날 갈라 콘서트



새해를 축제로 바꾸는 뉴욕의 방식

유럽의 신년 음악회가 전통과 의식으로 새해의 문을 연다면, 뉴욕필하모닉의 설날 갈라 콘서트는 훨씬 자유롭고 경쾌한 방식으로 새해를 맞이한다. 왈츠나 정해진 레퍼토리 대신 도시 뉴욕이 지닌 에너지와 다문화 색깔을 무대 위로 끌어올린다. 1842년 창단한 뉴욕필하모닉은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심포니 오케스트라이자, 미국 클래식 음악의 출발점 같은 존재다. 드보르자크의 '신세계 교향곡'을 미국 무대에 정착시키고, 동시대 작품을 꾸준히 초연해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설날 갈라 콘서트는 뉴욕필하모닉의 이런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연례 무대다. 해마다 음력설 무렵 열리며, 동서양 음악을 섞어 '뉴욕식 새해 콘서트'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특히 그해의 동물을 상징하는 이미지로 꾸민 포스터는 이 콘서트의 성격을 말해주기에 충분하다. 올해는 말의 해다. 포스터 속 힘차게 달리는 말이 무대의 분위기를 고스란히 전한다.

설날 무대의 주인공, 아시아음악

뉴욕필하모닉 설날 갈라 콘서트는 아시아 음악이 자연스레 중심에 놓이는 무대이기도 하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출신 연주자와 작곡가들이 꾸준히 참여하며, 이 콘서트는 동시대 클래식의 흐름을 보여주는 창구 역할을 해왔다. 2026년 설날 갈라 콘서트는 2월 25일, 링컨센터 데이비드 게펜 홀 우 차이 시어터 David Geffen Hall Wu Tsai Theater에서 열린다. 지휘는 중국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예술 감독 룽유가 맡는다. 소프라노 캐슬린 김은 이번 무대에서 뉴욕필하모닉 데뷔를 치르며, 바리톤 라오창용과 몽골 전통악기 연주자 하시바젠도 함께한다. 프로그램은 리환즈의 '봄 축제 서곡'으로 시작해 필영이 편곡한 한국 민요 '신아리랑', 로시니 오페라 아리아, 엘리엇 링의 '중국 주방' 발췌곡 미국 초연까지 이어진다. 서로 다른 음악이 한 무대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구성은 뉴욕필하모닉 설날 갈라가 왜 동서양이 만나는 새해 음악회로 불리는지 보여준다.

1. 뉴욕필하모닉 음악의 중심이 되는 데이비드 게펜 홀 공연장 전경
2. 미국 클래식 음악의 자부심 자체인 뉴욕필하모닉. 사진은 정기 연주 공연 모습
3. 설날 갈라 콘서트가 열리는 뉴욕 링컨센터 데이비드 게펜 홀
4. 연주장 밖 로비에서 공연을 감상 중인 뉴욕 시민들

2

클래식 음악 최고의 히트 상품
**빈필하모닉
신년 음악회**



1. 2026년 빈필하모닉 신년 음악회 지휘를 맡은 야니크 네제 세갱
2. 신년 음악회가 열리는 황금홀 전경. 3만 송이의 생화 장식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의식이 된 공연, 공연이 된 역사

새해의 문을 여는 순간, 전 세계 클래식 애호가들이 동시에 떠올리는 이름이 있다. 빈필하모닉 신년 음악회다. 1939년부터 시작한 이 음악회는 매년 1월 1일 오스트리아 빈 무지크페라인 황금홀에서 열리며, 슈트라우스 일가의 왈츠와 폴카 및 행진곡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특별한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오전 11시 15분에 시작해 150분가량 이어지는 빈필하모닉 신년 음악회는 현재 전 세계 90여 개국에 실황 중계되며, 특정 국가나 세대를 넘어 '세계인의 신년 의식'으로 자리 잡았다. 신년 음악회의 핵심은 스타 지휘자가 아닌 오케스트라 자체에 있다. 빈필하모닉은 지휘자가 없어도 연주를 완성할 수 있을 만큼 확고한 연주 관습과 스타일을 축적해왔고, 신년 음악회에서 지휘자는 이 전통 위에 자신의 해석을 더하는 존재에 가깝다. 특히 '슈빙(Schwung)'이라 부르는 빈 왈츠 특유의 리듬 감각은 악보에 기록되지 않는 연주 관습으로, 오랜 시간 빈의 생활 리듬과 음악 문화 속에서 형성됐다. 이 미묘한 박수의 유연함은 다른 오케스트라가 쉽게 흉내 낼 수 없는 빈필하모닉만의 정체성이며, 세대를 거쳐 젊은 연주자에게 자연스럽게 계승돼왔다. 이러한 전통의 축적과 유지가 빈필하모닉 신년 음악회를 단순한 연례 공연이 아닌, 클래식 음악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문화 브랜드로 만든 이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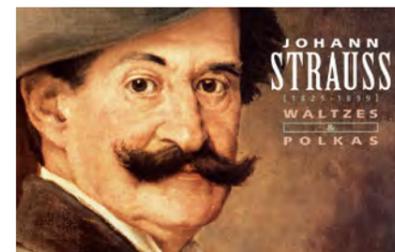
초연곡만 5곡, 전통은 진화 중

2026년 신년 음악회는 이 단단한 전통 위에 새로운 색채를 더한다. 캐나다 출신의 세계적 지휘자 야니크 네제 세갱이 처음으로 빈필하모닉 신년 음악회 지휘봉을 잡으며, 오랜 협업의 결실을 새해 무대에서 펼쳐 보인다. 그는 2010년부터 빈필하모닉과 인연을 맺어왔고, 2023년 쇤브룬 궁전 여름 음악회에서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올해 프로그램은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오페레타 〈인디고와 40인의 도적〉 서곡으로 막을 올려 '박쥐' 콰드릴, '외교관 폴카', '남국의 장미', '이집트 행진곡' 등 신년 음악회를 상징하는 명곡들로 이어진다. 여기에 카를 미하엘 치러, 요제프 란너, 에두아르트 슈트라우스의 작품을 비롯해 다섯 곡의 초연 레퍼토리가 포함돼 신선함을 더한다. 특히 지난해 역사상 처음 여성 작곡가의 작품이 연주된 데 이어 2026년에는 조세핀 바인리히와 플로렌스 프라이스의 작품이 다시 무대에 오른다. 여성 작곡가의 참여가 한 해의 화제를 넘어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전통의 앙코르곡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와 '라데츠키 행진곡'으로 마무리되는 이 음악회는 국내에서도 메가박스와 고양문화재단 등에서 생중계 상영으로 만날 수 있다. 빈까지 가지 않아도 새해 첫날, 세계 최고 오케스트라의 전통과 현재를 함께하는 경험을 극장에서 느껴보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는 선택이 될 것이다.

Concert Notes



황금홀 꽃 장식
빈필하모닉 신년 음악회에서 음악만큼 유명한 건 꽃 장식이다. 해마다 3만 송이 이상의 생화로 장식하는데, 단 한 번도 같은 디자인이 반복된 적이 없다. 1980년대부터 2013년까지는 이탈리아 산레모의 정원사와 플로리스트들이 꽃을 기부해왔으며, 현재는 빈시 공원청과 오스트리아 정원사·플로리스트들이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황금빛 무대를 가득 채운 생화의 화려함은 보는 것만으로도 새해를 맞이하는 모든 이를 축복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변함없는 앙코르 두 곡
빈필하모닉 신년 음악회의 마지막은 늘 두 곡으로 완성된다.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와 요한 슈트라우스 1세의 '라데츠키 행진곡'이다. 전쟁의 상처 속에서 위로와 생기를 건넨 음악으로, 승리의 환희와 패배의 기억을 함께 품고 있다. 이 두 곡은 제2차 세계대전 전후 혼란한 시기를 거치며 신년 음악회의 고정 앙코르로 자리 잡았다. 해마다 같은 순서로 연주되며, 관객에게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신호처럼 받아들여진다.



지휘자의 새해 인사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가 시작되기 전, 지휘자는 연주를 잠시 멈추고 객석을 향해 돌아선다. 그리고 단원들과 함께 "Happy New Year!"를 외치며 새해 인사를 건넨다. 음악을 통해 말하는 평화, 형제애, 사랑. 해마다 지휘자의 짧은 덕담도 이어진다. 이어 '라데츠키 행진곡'이 울리면 지휘자는 객석을 향해 손짓하고, 관객들은 박수로 화답하며 새해의 시작을 함께 연다. 오직 빈필하모닉 신년 음악회에서만 볼 수 있는 장면이다.



1

3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장 완벽한 음악
**베를린필하모닉
송년 음악회**

응집된 사운드로 완성한 연말

빈필하모닉이 1월 1일 새해의 시작을 상징한다면, 베를린필하모닉은 12월 31일 한 해의 끝을 맞는다. 베를린필하모닉은 신년 음악회 대신 송년 음악회를 전통으로 이어오며, 12월 29일부터 31일까지 같은 프로그램으로 연말을 장식한다. 이 음악회는 화려한 이벤트보다는 한 해를 정리하는 음악적 완성에 초점을 둔다. 독일의 음악 애호가들이 공연장이나 TV 중계를 통해 베를린필하모닉과 함께 연말을 보내는 이유다. 1882년 창단된 이후 한스 폰 뷔로, 빌헬름 푸르트벵글러,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클라우디오 아바도 등 거장들과 함께해온 베를린필하모닉은 ‘음악적 완벽의 전형’으로 불려왔다. 각 파트의 소리가 겹치지 않고 층층이 드러나는 음향, 중간 다이내믹에서도 살아나는 밀도는 이 오케스트라의 가장 큰 강점이다. 해석이나 콘셉트 이전에 소리 자체로 설득력을 갖는 오케스트라. 베를린필하모닉의 송년 음악회는 그렇게 한 해의 마지막을 마무리하기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무대로 자리해왔다.



2

1. 베를린필하모닉 공연 모습
2. 2019년부터 베를린필하모닉을 이끌고 있는 세계적 지휘자 키릴 페트렌코
3. 베를린필하모닉과 키릴 페트렌코의 시너지는 음악적 완벽의 전형을 이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4. '카라얀의 서커스'라는 애칭이 붙은 베를린필하모니 콘서트홀 내부 전경

비극에서 환희로 이어진 송년 무대

2025년 베를린필하모닉 송년 음악회는 상임 지휘자 키릴 페트렌코와 오케스트라의 응집력 위에 오페라의 감정선을 더한 무대였다. 중심에는 테너 뱁자멩 베르농이 섰다. 그는 오페라 <카르멘>의 돈 호세, <에브게니 오네긴>의 렌스키, <베르테르>의 주인공 등 사랑에 상처받은 인물들의 고통을 서정적 음색으로 그려냈다. 차이콥스키의 <에브게니 오네긴> 중 폴로네즈와 렌스키의 아리아, 구노의 <로미오와 줄리엣> 중 ‘아! 떠올라라 태양이여’, 마스네의 <베르테르> 중 ‘왜 나를 깨우는가?’는 연말의 정서를 깊이 끌어당겼다.

페트렌코는 사운드를 크게 흔들기보다 한 덩어리로 응집시킨 뒤, 그 안에서 미세한 조정으로 긴장과 에너지를 유지하는 지휘자로 평가받아왔다. 그의 손끝에 따라 베를린필하모닉 특유의 밀도 높은 현악과 균형 잡힌 앙상블이 또렷하게 살아났다. 이어진 샤브리에의 ‘에스파냐’, 거슈윈의 ‘쿠바 서곡’은 음악의 방향을 남유럽과 태양의 리듬으로 돌려놓았다. 사랑의 비극에서 생동하는 축제에 이어진 감정의 흐름. 베를린필하모닉의 송년 음악회는 그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향한 여운을 남겼다. ●



3

4

Concert Notes

**‘카라얀의 서커스’라는 애칭으로 불린
베를린필하모니 콘서트홀**



베를린필하모닉의 송년 음악회가 열리는 베를린필하모니Berliner Philharmonie는 독일을 대표하는 콘서트홀 중 하나다. 1882년 창단된 베를린필하모닉은 롤러스케이팅장을 개조한 옛 필하모니가 1944년 연합군 공습으로 파괴된 뒤, 교회와 영화관을 전전하며 연주를 이어갔다. 전쟁 이후 시민들은 ‘베를린필하모닉의 친구들’을 결성해 복권과 기금 우표 발행 등으로 신축 기금 모금에 나섰다, 오늘의 콘서트홀이 탄생했다.

설계 공모 끝에 채택된 이는 베를린 공대 교수 한스 샤론이었다. 무대를 중앙에 두고 객석을 여러 블록으로 나눈 그의 설계는 당시로서는 혁명적 발상이었고,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이때 지휘자 폰 카라얀이 설계안을 지지하며, 이 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베를린필하모닉을 떠나겠다고 선언한 일화는 지금도 전해진다.

보다 흥미로운 사실은 1963년 문을 연 이 필하모니가 통일 전에는 베를린장벽 바로 옆, 서베를린의 변두리에 자리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통일 이후 장벽이 무너지면서 음악당은 어느새 베를린의 정중앙에 놓이게 됐다. 건축 당시 누구도 확신할 수 없었던 통일을 마치 예고라도 하는 듯한 자리 선정이 아닐 수 없다.



찾는 이만 누릴 수 있는
순도 100% 알프스의 진짜 얼굴

Switzerland

스위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이자 휴양지 중 한 곳인 체어마트.
마을 어디에서건 마티호른을
감상할 수 있다.

설산과 호수, 깊은 계곡과 중세 도시... 이 모든 것과 함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스위스다.
작은 나라지만 지역마다 고유한 삶의 리듬과 자연의 결이 다른 까닭에 스위스는 전 세계 여행자의
사랑을 받는 여행지로 꼽히고 있다. 다르게, 더 깊이 있게 알프스의 대자연을 즐기는 법을 소개한다.

Cooperation_ 비아신세계(1644-8100) Photo_ 스위스정부관광청 www.MySwitzerland.co.kr, 비아신세계

스위스는 흔히 '아름다운 나라'로 일컫지만, 실제로 이곳을 여행해본 이들은 그 말이 얼마나 단순한 표현인지 금세 깨닫는다. 알프스의 능선, 호수, 초원, 중세 도시의 결이 겹겹이 쌓이며 만들어내는 풍경의 깊이는 단순한 아름다움을 넘어 감각적 경험으로 다가온다. 그중에서도 루체른과 체어마트, 아펜첼 지역은 스위스의 본질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곳으로 꼽힌다. 여기에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럭셔리 호텔 두 곳, 체르보 마운틴 리조트 CERVO Mountain Resort와 벨뷰 팔레스 베른 Bellevue Palace Bern이 더해지면 스위스 여행의 질은 완전히 달라진다.



루체른의 랜드마크인 카펠교.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지붕 있는 다리다.



체어마트에서 출발해 해발 3,089m의 고르너그라트 전망대까지 운행하는 전망 열차를 이용해 마티호른을 보다 가까이에서 마주할 수 있다.



필라투스 산 정상에 오르면 주변의 산들과 루체른 호수가 한눈에 들어온다.

루체른과 체어마트, 알프스가 만든 두 얼굴

스위스의 두 도시, 루체른과 체어마트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여행의 즐거움을 확장한다. 하나는 편안한 휴식과 웰니스를 통해, 또 다른 하나는 스키·전망·고산 체험을 통해 여행자에게 새로운 감각을 선사한다. 이 두 얼굴을 모두 경험한다면 스위스가 왜 ‘즐길 거리의 밀도가 높은 나라’로 평가받는지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된다. 루체른은 스위스 여행의 관문으로 통하는 만큼 도시와 자연의 균형이 뛰어나다. 루체른 호수를 따라 이어지는 산책로는 도시의 고요한 성격

을 보여주고, 카펠교와 무제크 성벽은 도시에 역사적 깊이를 더한다. 하지만 이 도시가 더욱 매력적인 이유는 볼거리보다 즐길 거리가 풍부하다는 점이다. 리기산과 필라투스 산 등 인근 산악 지대는 케이블카 덕분에 접근성이 뛰어나 누구나 가볍게 산책하듯 알프스 능선을 걸을 수 있다. 겨울철에는 도시 근교에 소규모 스키장이 개장하며, 본격적 스키 여행이 아닌 이색적 체험으로도 충분히 즐길 만하다. 풍경과 역사, 웰니스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루체른은 스위스를 가장 편안한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는 도시다. 루체른에서 멀지 않은 뷔르겐슈토크 고지대에는 세계적 웰니스 리조트 단지가 자리한다. 그 중심인 발트호텔 바이 뷔르겐슈

토크(Waldhotel by Bürgenstock)는 인피니티 풀 대신 의료·웰니스 프로그램과 호수를 내려다보는 절벽 전망 스파를 갖춘 공간에서 깊은 휴식과 회복을 누릴 수 있다. 전문 의료진이 운영하는 디톡스·재활·호흡·피트니스 프로그램은 ‘치유형 럭셔리’라는 새로운 여행 방식의 기준을 제시한다. 반면 체어마트는 루체른과는 완전히 다른 결을 지닌다. 마을의 어디에서든 마티호른을 마주할 수 있으며,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달라지는 산의 표정을 감상하는 묘미가 있다. 그뿐 아니라 도시 전체의 분위기도 함께 변해 시시각각 다른 무드 속에서 머무를 수 있다. 자동차가 없는 마을의 특성상 자연의 소리와 공기가 고스란히 전달되고, 여행자는

‘알프스 속에 들어와 있다’는 감각을 뚜렷하게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체어마트다. 이곳의 즐길 거리는 스위스에서 독보적이다. 겨울이면 세계적 스키 도시로 탈바꿈하며, 수십 개 코스가 마티호른을 배경으로 이어져 스키어에게 최고의 조망을 제공한다. 스키에 익숙하지 않은 이도 걱정할 필요 없다. 마티호른을 정면으로 마주한 온수풀과 사우나, 각종 웰니스 프로그램이 마련된 하이엔드 호텔들은 ‘스키를 타지 않는 여행자’에게도 충분한 만족을 준다. 여기에 고르너그라트 전망 열차는 설산과 빙하가 어우러진 압도적 파노라마를 선사하며 스위스 여행의 백미로 꼽힌다.



아펜첼과 에벤알프, 스위스의 원형을 품은 초원

스위스 동부의 아펜첼 지역은 스위스 문화의 근원을 찾을 수 있는 농가 풍경과 초원이 이어지는 곳이다. 이 지역의 에벤알프는 마티호른이나 융프라우처럼 널리 알려진 명소는 아니지만, 스위스 자연의 본질적 아름다움을 가장 순수한 형태로 간직한 곳이다. 푸른 초원과 부드러운 능선이 이어지는 이 지역은 목가적 풍경과 깊은 산세가 공존하는 독특한 매력을 지니며, 여행자의 발길이 닿으면 마음이 먼저 평온해지는 곳이다. 산 아래에서는 풀 냄새와 소릿 짜는 냄새가 뒤섞이며 아펜첼 특유의 농가 풍경이 펼쳐지고, 알프혼^{Alphorn} 소리가 멀리서 은은하게 들려오기도 한다. 이 지역의 자연은 장엄하고 경이롭기보다, 스위스가 오랜 시간 지켜온 전통과 삶의 방식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일상적 자연'에 가까운 면모를 품고 있다. 케이블카로 고도를 높이면 초록빛 능선이 펼쳐지고, 빌트키르힐리 동굴 성당을 지나며 걷는 절벽 길은 스위스가 자연 앞에서 지켜온 겸허함을 보여준다. 길 끝에서 만나는 애셔^{Äscher} 산장은 에벤알프를 상징하는 대표적 풍경이다. 절벽 아래에 붙어 서 있는 듯한 이 산장은 내려다보이는 초원과 위로 솟은 암벽이 극명한 대비를 이루며 스위스만의 생경한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한 잔의 커피조차 특별한 기억으로 남을 정도로 이곳의 풍경은 깊은 인상을 심어준다. 아펜첼은 관광객이 아니라 자연과 전통이 여전히 살아 숨 쉬는 삶의 현장이라는 점에서 스위스 여행의 깊이를 더한다.



1. 스위스에서 가장 목가적인 풍경을 보여주는 아펜첼 마을 모습
2. 에벤알프의 명소인 애셔 산장. 절벽 앞에 지어져 인상적인 풍경을 이룬다.
3. 체어마트 기술에 자리한 체르보 마운틴 리조트
4. 15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벨뷰 팔레스 베른



스위스 럭셔리 여행의 두 정점

스위스의 럭셔리 여행은 크게 두 가지 결로 나뉜다. 자연 속에서 모던함을 구현한 리조트와 국가의 역사와 품격이 깃든 클래식 호텔이다. 이 두 얼굴을 대표하는 곳이 체어마트의 체르보 마운틴 리조트와 베른의 벨뷰 팔레스 베른이다. 체르보 마운틴 리조트는 체어마트의 산기슭에 자리해 자연과 감각적 디자인이 공존하는 컨템퍼러리 리조트의 전형을 보여준다. 여러 동의 살레가 자연 지형을 따라 배치되어 있으며, 일부 객실에서는 마티호른을 정면으로 조망할 수 있다. 스키 인·아웃이 가능한 구조와 요가 스튜디오·사우나·온천을 갖춘 아트망 마운틴 스파^{Ätman Mountain Spa}는 '자연 속에서의 현대적 웰니스'를 완성한다. 자연 소재를 중심으로 한 인테리어는 과하지 않고 절제된 스위스 럭셔리의 미학을 반영한다. 반면 벨뷰 팔레스 베른은 스위스 역사와 전통을 대표하는 공간이다. 150년 넘는 장구한 역사를 지닌 이 호텔은 스위스 정부의 공식 영빈관으로 사용되며, 세계 정상과 외교 사절단이 찾는 상징적 장소다. 벨에포크와 네오클래식 양식이 공존하는 실내는 클래식 호텔의 정수를 보여주며, 아래강과 알프스가 동시에 내려

다보이는 전망은 베른 도심에서도 쉽게 경험할 수 없는 풍경이다. 이곳은 단순한 숙박 시설이 아니라, 스위스 정치·문화의 중심에 머무르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



새로운 경험을 찾는 여정 비아신세계

남들과는 다른 색다른 프리미엄 여행을 찾다면 비아신세계를 추천한다. 비아신세계는 신세계백화점에서 직접 진행하는 여행 서비스로, 색다른 프리미엄 상품을 제공하며, 백화점 VIP 실적 인정까지 가능하다.



땅끝전망대에서 바라본 노을 풍경

자연의 고요 속에 머물다 지금 가장 아름다운 겨울 풍경

화려한 색채가 사라진 겨울 풍경은 차가운 공기와 함께 계절의 낭만으로 채워진다. 유난히 특별하게 다가오는 1월의 일출과 순백의 옷으로 갈아입은 자연은 동심으로 돌아간 듯 설렘마저 안긴다. 오직 이 계절에만 허락된 완벽한 고요, 그 풍광 속으로 떠나보자.

Editor_ 박소윤, 지연 Photo_〈SRT 매거진〉



두륜산에서는 케이블카를 타고 겨울 설산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①

겨울 햇살이 가장 먼저 닿는
땅끝마을 in 해남

포근한 햇살이 그리워지는 계절이다. 쪽빛 남해에 고요히 떠 있는 섬들이 수목화처럼 펼쳐진 해남 땅끝마을로 떠나 본다. 겨울에도 온화하게 불어오는 해풍이 마음마저 따뜻하게 감싸주는 듯하다. 우리나라 국토의 끝이자 희망적인 땅끝마을은 한반도의 기가 모여 희망과 소망을 충전하는 특별한 곳이다. 일몰과 일출 모두 아름답기로 유명해 매년 연말연시가 되면 소원을 비는 이들로 북적인다. 특히 땅끝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노을은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겨울 특유의 청명한 공기 덕에 붉게 물든 하늘과 바다의 윤곽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 일몰 명소로 꼽힌다. 땅끝탐, 땅끝 모노레일, 세계의 땅끝공원 등 인근 관광지도 함께 둘러보며 겨울 땅끝마을의 매력을 만끽해보자.

②

은빛 설산과 마주하다
두륜산 in 해남

전라남도 해남의 두륜산(頭輪山)은 이름만큼이나 영험하고, 장엄한 은빛 세상을 보여준다. 한반도의 마지막 단풍이 머물다 가는 곳이지만, 겨울이 깊어지면 이곳은 바다 위로 솟아오른 거대한 설국으로 변신한다. 두륜산 겨울 여행의 백미는 단연 케이블카를 타고 눈부신 설경을 받아들고 오르는 것. 두륜산에서 네 번째로 높다는 고계봉에 케이블카가 설치되어 있는 덕분에 등산하는 데 익숙하지 않은 이들도 힘들이지 않고 겨울 산행 기분을 낼 수 있다. 겨울에도 정상 운행하며, 맑은 날에는 유달리 탁 트인 조망을 즐길 수 있다. 정상부에서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다도해와 해남 들녘의 풍경은 가히 압도적이다.

3

하늘과 바람이 그린 고원 풍경 자작나무 숲 in 태백

대한민국 대표 고원 도시 태백의 상징 중 하나는 순백의 자작나무 숲이다. 지리골부터 구와우마을, 매봉산 산악 관광지 등에서 자작나무 숲을 만날 수 있다. 하얀 자작나무가 빼곡이 들어서 북유럽 같은 이색적 풍광을 연출한다. 숲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겨울 숲을 느끼기에 부족함이 없을 테지만, 조금 다른 시야의 숲을 보고 싶다면 전망대에 올라 태백산의 장엄한 능선을 내려다보자. 33m 높이의 태백산하늘전망대는 태백산의 새로운 명소로 떠올랐다. 무장애 탐방 시설로 설계해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 평균 경사 3.6도의 완만한 나선 형태를 그리며 올라가 휠체어나 유아차로도 접근 가능하다.



1

4

강원의 또 다른 겨울 풍경 판운리 썰다리 in 영월

영월까지 왔다면 놓칠 수 없는 풍경을 자아내는 곳, 판운리 썰다리다. 판운리 썰다리는 이제 그 흔적을 찾기 어려운 우리나라 전통 다리 중 하나다. 통나무로 기둥을 박고 그 위에 잎나무나 잔가지 따위를 엮어 세운 것으로, 발끝에 푹신푹신하고 보드라운 기운이 전해진다. 평창강을 사이에 두고 밤나무가 많이 자란다는 밤뒤마을과 건너편의 미다리마을을 하나로 연결해준다. 두 마을의 주민들이 이 다리를 건너 왕래한다. 강을 사이에 둔 마을 주민들은 썰다리 덕분에 편히 왕래할 수 있는데, 매년 물이 줄어든 겨울 초입에 놓았다가 여름철 불어난 물에 떠내려갈 때까지 이용한다. 사람이 건너는 데는 문제없이 튼튼하면서도 강물에 흔적 없이 해체되는 이 소박하고 정겨운 썰다리를 보기 위해 매해 여러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여든다.



2



3

5

천년 고찰에서 맞이하는 설경 부석사 in 영주

살면서 한 번쯤 봐야 하는 위대한 우리의 문화유산으로 손꼽히는 부석사의 무량수전.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문화재 답사기인 유흥준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산사편>에서 맨 처음 사찰로 소개되고 있으며, 미술학자 최순우의 문화유적 답사기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기대서서>의 무량수전이 바로 이곳 부석사의 무량수전을 가리킨다. 사학자나 미술사학자뿐 아니라 건축가, 시인, 소설가 등 우리 시대의 많은 이가 부석사를 방문하며 느낀 아름다움을 전하고 있다. 부석사가 유명한 이유는 일주문을 거쳐 무량수전에 다다랐을 때의 광경과 천년의 세월을 견뎌낸 우리나라 최고의 목조건물이 자아내는 아름다움 때문일 것이다. 눈으로 덮인 부석사는 고즈넉함과 아늑함을 동시에 느끼게 하고, 사찰에서 내려다보이는 설경은 색다른 울림을 전한다. ●

- 1. 순백의 색으로 갈아입은 태백의 자작나무 숲
- 2. 우리나라 전통 다리 중 하나인 판운리 썰다리
- 3.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부석사의 겨울 풍경

드러냄 없이 환경에 스며든 건축 2025 세계건축페스티벌

지난해 11월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비치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2025 세계건축페스티벌^{WAF}에서 라스쭈베라스 성 구세주 교회·커뮤니티 센터가 '세계 올해의 건축물'로 선정됐다. 이 건축물을 포함해 올해 수상작들은 자연과 지역성을 건축에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Writer_ 두경아 Photo_ 각업체 제공

콘크리트로 빚어낸 빛과 소리의 조화

스페인 라스쭈베라스 성 구세주 교회·커뮤니티 센터

The Holy Redeemer Church and Community Centre of Las Chumberas

2008년 출범한 세계건축페스티벌은 매년 전 세계 1,800명 이상의 건축가와 디자이너가 참여하는 국제 건축 행사다. 준공 건축과 미래 프로젝트, 인테리어, 조경 등 여러 부문에서 수상작을 발표한다. 2025년 '세계 올해의 건축물'로 선정된 라스쭈베라스 성 구세주 교회·커뮤니티 센터는 조형적 콘크리트 구조와 빛·음향을 결합한 건축으로 유명한 스페인 건축가 페르난도 멘이스(Fernando Menis)의 작품이다. 이 교회는 완공 후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으며 소외됐던 지역에 도시 재생의 활력을 불어넣었다. 교회는 모두 4개 건물로 구성되어 있다. 건축 비용을 전액 부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기부금에 의존하다 보니 전체 건물이 완공되기까지 무려 16년이나 걸렸다. 이 건물은 주변의 화산지형에서 영감을 받

아 만들어 거칠고 육중한 모습을 띤다. 각각의 건물 사이에는 좁은 틈이 생겼고, 이 공간에는 금속 조형물과 유리를 삽입해 자연광이 내부로 스며들도록 했다. 이 건축에서 빛은 단순한 조명 수단을 넘어 공간을 규정하는 핵심 요소다. 교회는 창을 내는 대신, 십자가 모양의 틈이나 천창을 통해 빛을 받아들인다. 덕분에 내부 공간은 하루 동안 변화하는 빛의 방향과 농도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주요 재료로 사용된 콘크리트는 구조와 형태, 질감, 음향 성능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역할을 한다. 콘크리트는 비용과 내구성 측면에서 효율적일 뿐 아니라, 에너지 성능도 우수하다. 잘게 부순 콘크리트에 화산석을 섞어 마감해 건물은 소리를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정교한 음향 환경을 제공한다.



1

©Patri Càmpera



©Simona Rota

2



©Simona Rota

3

1. 주변의 화산지형에서 영감을 받아 거칠고 육중한 모습을 띤 외관
2. 교회는 창을 내는 대신, 십자가 모양의 틈이나 천창을 통해 빛을 받아들인다.
3. 잘게 부순 콘크리트에 화산석을 섞어 마감해 음향효과를 높였다.



신장강 생태 회랑은 물의 흐름을 경관과 생태 회복을 이끄는 요소로 받아들여 조성했다.

홍수를 설계에 반영한 공공 건축 중국 신장강 생태 회랑 Xinjiang River Ecological Corridor

중국 상라오시에 조성된 신장강 생태 회랑은 한때 홍수 위험이 컸던 범람원을 시민을 위한 공공 공간으로 바꾼 프로젝트다. 약 102헥타르에 이르는 넓은 부지, 길이만 약 3km에 달하는 곳에 생태 복원과 주민의 삶, 홍수 대응을 함께 고려해 재구성했다. 다만, 설계 시 물을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고 '스펀지 시티' 개념을 적용했다. 계절마다 넘나드는 물의 흐름을 경관과 생태 회복을 이끄는 요소로 받아들인 것. 그 결과 강변 접근성이 되살아났고, 도시는 자연스럽게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 설계의 중심에는 폰딩(Fonding)과 아일랜드링(Islanding)이라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폰딩은 물을 가두는 대신 머물게 하는 전략이다. 훼손된 구역을 물을 품는 다공성 경관

으로 바꾸고, 주변 산지에서 흘러든 빗물을 자연스럽게 정화하는 배수 공간을 만들었다. 아일랜드링은 낮은 지형을 재구성해 크고 작은 습지를 조성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습지와 육지가 만나는 경계의 환경이 풍부해지고, 다양한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됐다. 시민을 위한 공간 역시 물의 변화를 전제로 한다. 물난리에도 안전한 고가 스카이워크와 수위에 따라 잠길 수 있는 하부 산책로를 조성했다. 주변 곳곳에는 플랫폼과 전망 테크를 마련해 산책과 휴식은 물론, 자연 학습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보행로와 구조물에는 지역에서 조달한 재료와 공장에서 제작한 콘크리트 모듈을 사용해 내구성을 높이고, 유지 관리 부담을 최소화했다.

자연 지형에 살포시 얹힌 집 캐나다 리지 하우스 Superkül Ridge House

들판과 숲이 맞닿는 경계에 자리한 리지 하우스는 집을 땅 위에 '세우는' 대신 지형 속에 자연스럽게 엮는 방식을 채택한 주거 프로젝트다. 완만한 경사를 따라 배치된 모습은 지형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며, 가장 눈에 띄는 요소인 지붕 역시 건축 장치라기보다 지형의 일부처럼 읽힌다. 이 집은 풍경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주변 환경에 스며드는 쪽을 택했다. 설계 중 부지 한가운데 서 있던 나무 한 그루는 제약이 아니라 기준이 됐다. 주택은 지형이 살짝 움푹 들어간 지점에 안착해 들판 쪽에서는 지붕선만 낮게 보이고, 도로를 향한 전면은 의도적으로 숨겨진다. 덕분에 프라이버시는 자연스럽게 확보되고, 시선은 뒤편의 숲과 나무로 향한다.

지붕은 이 집의 인상을 결정짓는 요소이자, 패시브 디자인의 핵심 장치다. 앞으로 길게 뻗은 처마는 서쪽에서 들어오는 강한 햇빛을 조절한다. 환기하기 쉽게 여단을 수 있는 삼중 유리 아코디언 도어를 설치했다. 실내에서는 자연의 리듬이 더욱 또렷하게 드러난다. 집 안 중심에는 작은 중정이 자리하고, 이곳을 통해 빛이 비스듬히 들어오게 했다. 거실과 다이닝 공간의 천장은 아치형 천장과 벽을 따라 부드러운 확산광을 만들어내며, 시간에 따라 공간의 표정을 바꾼다. 에너지 전략도 지혜롭다. 공용 공간에는 구역별 온수 복사 난방을 적용했고, 한랭 기후에 적합한 히트 펌프와 청정 전력망을 결합해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했다.

1. 리지 하우스는 자연의 일부처럼 주변 환경에 스며들어 있다.
2. 거실과 다이닝 공간의 천장은 아치형 천장과 벽을 따라 부드러운 확산광을 만들어낸다.





기둥 없이 약 50m를 가로지르는 아치형 지붕 구조가 특징인 중앙역 중심부

효율적으로 재편한 중앙역의 변신 호주 시드니 중앙역 Central Station

세계적 건축 스튜디오 우즈 배곳Woods Bagot과 존 맥아슬란 + 파트너스John McAslan + Partners는 시드니 철도 서비스의 96%가 집중되는 중앙역에 최첨단 메트로 환승역을 통합하기 위해 공간과 구조를 전면적으로 재구성했다. 운영 구역을 효율적으로 새로 짜고, 다층적 승객 동선 전략을 도입해 대규모 인파를 원활하게 소화하도록 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교통 시설 확장을 넘어 향후 재생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장기 계획의 일환이다.

20세기 초에 건축된 기존 역사에 새로운 주 출입 동선을 추가했으며, 중심부에는 중간 기둥 없이 약 50m를 가로지르는 아치형 지붕 구조를 설치했다. 기존의 시계탑과 대합실 등 상징적 요소는 보존하면서 역사적 건축의 위상을 훼손

하지 않도록 설계했다.

메트로는 중앙역 중심부에 깊숙이 자리 잡으며, 지하 공간 역시 중요한 건축 요소로 다뤘다. 설계는 시드니의 역사적 맥락을 반영해 이 지역에서 널리 사용해온 호크스베리강Hawkesbury 사암의 질감을 참고했다. 규모 면에서는 기존 역사 건물에 필적하지만, 대부분의 공간은 지하에 배치됐다. 주요 지점마다 자연광을 끌어들이 이용자가 방향과 동선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전체 설계의 중심에는 이용자 경험이 놓여 있다. 북측에 새로 조성된 대합 공간처럼 시야가 트인 장소는 주요 이동 지점에서 쉽게 선택하고, 역사 전반의 접근성과 연결성을 높인다.



1. 프라빠툼체디에서 영감을 받은 센트럴 나콘빠툼
2. 곡선형 건축 요소와 타일 마감을 적용한 북측 외관
3. 겹겹이 쌓인 둥근 벽체가 아치형 입구를 이룬 북서측 출입구

전통과 현재가 조화를 이룬 복합 쇼핑 건물 태국 센트럴 나콘빠툼 Central Nakhon Pathom

스튜/디/오 건축 회사stu/D/O Architects가 설계한 센트럴 나콘 빠툼은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엮어낸 복합 공간이다. 이 복합 공간은 지역의 역사적 명소인 '프라빠툼체디'의 디자인 요소에서 영감을 받아 설계되었다.

건물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 문화와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한 세 가지 테마의 출입구다. 북측 외관은 프라빠툼체디를 모티브로 한 곡선형 건축 요소와 타일 마감을 적용했다. 특히 건물 표면에 설치한 반사 패널은 인근의 역사적 구조물을 비추며, 마치 옛 건축물이 현대 건물 위에 겹쳐 있는 듯 독특한 경관을 연출한다.

북서측 출입구는 파고다 내부 통로를 형상화했다. 겹겹이

쌓인 둥근 벽체가 아치형 입구를 만들고, 천장의 반사 재질은 방문객의 동선에 따라 공간에 깊이감을 더한다. 남동측 출입구는 지역 명물인 포멜로Pomelo 정원과 연결된다. 야외 마켓으로 이어지는 이곳은 경사진 지붕을 활용해 친근한 시장 분위기를 조성했으며, 지붕 아래 광장에서는 다양한 상업 활동과 주민들의 일상이 어우러진다.

'삶의 중심Centre of Life'을 표방하는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상업 시설을 넘어 지역 주민과 방문객 모두를 끌어들이는 커뮤니티 공간을 지향한다. 전통 건축의 상징성과 현대적 공간 구성은 나콘빠툼의 문화적 맥락 속에서 새로운 도시 경험을 만들어내는 장치로 작동한다. ●





이탈리아 북부 두 도시에서 열리는 겨울 최대 축제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이탈리아가 20년 만에 다시 한번 겨울스포츠의 중심 무대에 선다. 2026년 2월 6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은 패션 및 디자인 수도 밀라노(Milano)와 베네토주 벨루노도에 위치한 휴양도시 코르티나담페초(Cortina d'Ampezzo)에서 이원 개최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신축 시설을 최소화하고, 기존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는 '지속 가능성'이 대회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올림픽 어젠다 2020' 정책에 따라 1국가 1도시 단독 개최 원칙이 폐지되면서, 여러 도시가 함께 올림픽을 치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따라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은 둘 이상의 도시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첫 동계 올림픽이 됐다. 코르티나담페초는 1956년 동계 올림픽을 개최한 이후 70년 만에 다시 올림픽 무대를 선보이게 된다.

이번 대회에서 피겨스케이팅, 쇼트트랙, 아이스하키 등 주요 빙상 종목은 밀라노에서 열린다. 반면 코르티나담페초에서는 봅슬레이, 컬링, 루지, 알파인스키, 스킨스노보드 등 설상 종목이 펼쳐진다. 경기장은 이 두 거점을 중심으로 이탈리아 북부 알프스 전역에 넓게 분산 배치된다. 크로스컨트리 스키와 바이애슬론은 라센안톨츠(Rasen-Antholz)에서 열리고, 스노보드와 프리스타일 스키는 리비노(Livigno), 스키점프와 노르딕 복합 경기는 프레다초(Predazzo)에서 각각 치른다. 종목별 특성과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 분산 개최하는 방식으로, 자연환경과 기존 경기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이 이번 대회의 특징이다.

대회가 밀라노와 코르티나담페초를 중심으로 분산 개최되는 만큼 선수촌 역시 4개 지역으로 나뉘어 조성된다.

2026년 2월, 이탈리아 패션 및 디자인 수도 밀라노와 동계 스포츠의 중심지 코르티나담페초가 손잡고 '지속 가능한 올림픽'을 개최한다. 둘 이상의 도시가 공동 개최하고 도시명을 함께 공식 명칭에 사용한 첫 동계 올림픽이라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

Writer_ 두경아 Photo_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한국 대표팀의 금메달 유망주와 기대주

한국 국가대표팀의 메달 전망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은 남자 500m를 제외한 모든 개인 종목에서 각각 3장의 출전권을 확보했다. 남자 500m에서는 3장 중 1장을 잃었지만, 총 2장의 출전권을 지켜내며 여전히 강력한 전력을 과시했다. 가장 확실한 금메달 후보로는 여전히 최민정이 꼽힌다. 이미 두 차례 올림픽에서 금메달 3개를 획득한 최민정은 1,500m와 1,000m를 주 종목으로 삼고 있다. 이번 대회까지 3회 연속 올림픽 출전에 나서는 그는 풍부한 경험과 뛰어난 경기 운영 능력을 겸비한 베테랑으로 평가받는다. 최근 국제 대회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인 김길리도 주목할 선수다. 20대 초반의 젊은 스케이터로, 폭발적 스피드와 공격적 레이스 감각이 강점이다. 2025~2026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월드 투어 1~4차 대회에서 금메달 2개와 은메달 2개를 따내며 올림픽 기대감을 높였다. 국제빙상경기연맹 쇼트트랙 월드 투어

1,000m 결승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임종연 역시 기대주다. 국가대표 선발전 1위를 차지하며 대표팀의 중심으로 떠올랐고, 1,500m와 계주에서 메달권 진입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른 종목에서도 눈여겨볼 선수들이 있다.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의 차준환은 안정적 연기력과 높은 프로그램 완성도로 꾸준히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기술 난도와 체력 관리가 변수지만, 시즌을 건강하게 마무리할 경우 상위권 진입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평가다. 여자 피겨스케이팅에서는 신지아·김채연·이해인이 올림픽 출전권 2장을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이 가운데 신지아가 1차 올림픽 선발전에서 압도적 우승을 차지하며 출전에 한 발 앞서 나갔다.

이 밖에도 스노보드 기대주 유승은과 최가은, 스킨레톤의 간판스타 정승기 등이 국제 대회에서 연이어 메달을 획득하며 올림픽에서도 선전을 예고하고 있다.



쇼트트랙 최민정 선수



피겨스케이팅 차준환 선수



피겨스케이팅 이해인 선수



동계 올림픽의 관전 포인트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에서는 설상 종목에는 산악 스키가 새롭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면서 세부 종목에서도 개편이 이뤄진다. 스킨레톤 혼성 단체전, 루지 여자 2인승, 프리스타일 스키 남녀 듀얼 모굴, 스키점프 라지힐 여자 개인전이 추가돼 경기 종목의 폭이 넓어진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 대회에서 제재를 받아온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들은 이번 올림픽에서도 개인 또는 중립 선수 자격으로만 제한적 참가가 허용된다. 반면 패럴림픽에서는 두 국가의 국기를 달고 출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대회에는 새로운 참가국도 등장한다. 아랍에미리트와 기니비사우가 사상 처음으로 동계 올림픽 무대에 오른다.

이번 올림픽은 두 도시에서 열린다는 점을 반영해 2개의 반원이 만나 하나의 원을 이루는 형태로 메달을 디자인했다. 이탈리아 조폐인쇄국이 자체 생산 폐기물에서 회수한 금속을 활용해 제작하며, 100% 재생에너지로 가동되는 가열로를 사용한다.

마스코트는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아이디어 공모에서 공개투표를 거쳐 담비 남매 '티나'와 '밀로'로 결정했다. 티나는 올림픽, 밀로는 패럴림픽을 상징하며 각각 코르티나담페초와 밀라노의 이름에서 착안했다.

한편, 대한민국의 시차로 인해 주요 경기는 국내 기준 밤부터 새벽 시간대에 진행될 예정이다.

2026년 이탈리아에서는 올림픽 외에도 다양한 국제 행사가 열린다. 4월 21~26일 열리는 밀라노 디자인 위크는 세계 최대 규모의 디자인·라이프스타일 박람회로, 가구와 인테리어를 넘어 도시, 기술, 지속 가능성까지 아우르는 디자인 트렌드를 제시한다. 세계 최대 비엔날레 중 하나인 베니스 비엔날레는 짝수년에는 미술전, 홀수년에는 건축전을 번갈아 개최하고 있다.

2026년 미술전은 이탈리아 베네치아 카스텔로 공원 등지에서 5월 9일부터 11월 22일까지 이어진다. 또한 알베르토 바르베라가 예술감독을 맡은 제83회 베니스 국제영화제는 2026년 9월 2일부터 12일까지 베네치아 리도섬에서 열린다. ●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경기 일정

분류	종목	날짜
빙상 종목	피겨스케이팅	2월 6~19일
	스피드스케이팅	2월 7~21일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2월 10~20일
	아이스하키	2월 5~22일
	컬링	2월 4~22일
설상 종목	알파인스키	2월 4~18일
	크로스컨트리 스키	2월 7~22일
	바이애슬론	2월 8~21일
	스키점프	2월 5~16일
	노르딕 복합	2월 9~19일
	프리스타일 스키	2월 7~21일
썰매 종목	스노보드	2월 5~18일
	루지	2월 4~12일
	봅슬레이	2월 12~22일
	스켈레톤	2월 9~15일
	개회식, 폐회식	2월 6일, 22일
	2026 동계 패럴림픽	3월 6~15일



골프의 성지로 일컫는 스코틀랜드 세인트앤드루스 링크스 올드코스 1번 홀 전경

골프의 영원한
'성지'를 가다

St. Andrews Links

스코틀랜드의 세인트앤드루스 링크스는 그 이름만으로 모든 골퍼의 로망을 충족시키는 곳이다. 아름다운 풍광에 흠뻑 젖어 황량한 페어웨이와 거친 러프, 북해의 가혹한 바람을 잊을 수 있다면 말이다. 골퍼라면 누구나 꿈꾸는 그곳, 세인트앤드루스로 떠났다.

Writer_ 조수영 한국경제신문 기자 Photo_ 세인트앤드루스 링크스

스코틀랜드의 수도 에든버러에서 자동차로 1시간 30분, 드디어 '로열 앤드 에인션트 R&A 월드 골프 뮤지엄', 그 뒤로 드넓게 펼쳐진 수평선을 마주했다. 골퍼라면 꼭 서고 싶은 바로 그곳, 골프의 고향이자 성지聖地 세인트앤드루스 링크스였다.

모든 골퍼의 버킷 리스트

경험만으로 훈장이 되는 골프장이 있다. 미국의 오거스타 내셔널 GC, 사이프러스 포인트 GC, 페블비치 골프 링크스... 그리고 빠지지 않는 곳이 스코틀랜드의 세인트앤드루스 링크스다. 1500년대 만든 골프의 탄생지, 그러기에 이름조차 '올드코스'인 곳. 황량한 페어웨이와 거친 러프, 수많은 골프 전설이 거쳐간 스윙컨 다리. 골퍼로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낭만으로 가득한 곳이다. 휴가를 잡아 야심 차게 세인트앤드루스 링크스를 찾았지만, 성지인 올드코스 라운드는 현실적으로 힘들었다. 1년 치 예약이 지역 주민과 R&A 회원들로 일찌감치 마감되어 있고, 취소 티에 한해 당일에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세계 각국에서 온 골퍼들이 실낱같은 희망을 안고 밤을 새우는 이유다. 그

대신 일요일에는 라운드를 운영하지 않고 모두에게 개방한다. 세인트앤드루스의 또다른 챔피언십 링크스인 '뉴코스' 역시 하루 전에 예약을 받는다. 세인트앤드루스 링크스 내 7개 코스 중 여행 기간이 열흘 남짓한 한국인 골퍼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은 주빌리코스였다. 1897년 빅토리아 여왕의 즉위 60주년 '다이아몬드 주빌리'에 개장한 주빌리코스는 북해와 뉴코스 사이에 길고 가늘게 자리 잡고 있다. 페어웨이가 좁고 해풍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에 가장 도전적이면서도 풍광이 멋진 코스로 평가받는다. 8월 초, 온라인으로 10월 25일 오후 1시 4분 티를 예약했다. 올드코스 순례를 위해 라운드는 토요일로 잡았다. 그린 피는 1인당 105파운드(약 21만원)로 합리적인 편이었다. 캐디 고용 여부는 선택할 수 있고, 이동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면 모두 걸어서 코스를 소화해야 한다. 세인트앤드루스행을 앞두고 여러 사람에게 조언을 구했다. 박은하 前 주 영국 대사는 "캐디를 반드시 고용하라"고 강조했다. 세인트앤드루스의 바람은 상상 이상이기에 처음 방문한 골퍼가 라운드를 제대로 즐기려면 캐디가 필수라는 설명을 듣고 곧장 캐디를 신청했다. 캐디 피는 기본 팁을 포함해 110파운드(약 22만원)부터 시작한다. "스코어를



올드코스 전경. 세인트앤드루스는 일요일에 올드코스의 라운드를 운영하지 않고 골퍼 성지를 찾는 순례자에게 무료로 개방한다.

잊어라. 그저 골프의 고향에 있는 순간을 즐기시라"는 골퍼 교습 코치 이가나 프로의 조언도 가슴에 담았다.

입장만으로 경건해지는 골프의 성지

드디어 10월 25일, 생애 최고의 라운드를 위한 날이 밝았다. 쾌청하게 맑은 하늘 아래 클럽 하우스 앞에는 유니언 잭과 클럽 깃발, 스코틀랜드 국기가 힘차게 나부꼈다. 골프의 성지에 왔다는 감동에 깃발들이 지나치게 힘차게 나부끼고 있다는 사실을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다. 마스터스 대회 취재를 위해 미국 오거스타 내셔널 GC에 들어섰을 때는 마치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의 정원에 초대받은 듯한 느낌이 들었다.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면서도 아름다운 회원제 골프장답게 완벽하게 관리된 잔디와 아름다운 조경에 압도된 적 있었다. 세인트앤드루스 링크스는 바티칸의 성베드로 대성당에 들어선 듯한 감동을 주었다. 담백하다 못해 황량하기까지 한 코스, 하지만 돌 하나 덩불 하나에도 골프의 역사가 녹아 있었다. 그곳을 내 발로 딛고 숨 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경건해졌다. 핫팩을 몸통 앞뒤에 붙이고 목도리와 털모자, 방풍 기능성 골프 웨어로 온

몸을 감싼 채 스타트 하우스로 갔다. 야디지 북과 연필, 스코어 카드를 받고 설레는 마음으로 몸을 풀고 있으니 중년 스코티시 남성 2명이 다가왔다. 라운드를 도와줄 캐디, 공교롭게도 둘 다 이름이 브라이언이었다. 모두 R&A 회원으로, 간혹 아르바이트 삼아 캐디를 한다고 했다.

범프 앤드 런의 진수를 맛보다

팅 구역에 서고 나서야 미친 듯한 바람이 느껴졌다. 거기에 비하면 제주도 바람은 순한 편이었다. 나무가 거의 없어 북해의 바람이 곧바로 때리는 탓에 티에 올린 공이 떨어질 정도였다. "수, 바람이 오른쪽으로 거세게 불고 있잖아. 10시 방향으로 티 샷을 해야 해." 브라이언의 조언대로 왼쪽으로 크게 돌아 티 샷을 했다. 초반에는 의외로 경기가 잘 풀렸다. 하체에 힘을 잔뜩 주고 샷을 한 덕분에 공이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간혹 공이 덩불이나 옆 홀로 빠져도 베테랑 캐디 브라이언은 귀신같이 공을 찾아냈다. 클럽은 무조건 두 클럽 이상 크게 잡았다. 한국에서 7번 아이언으로 110m 안팎을 치지만, 이날은 전장 100m 파 3인 5번 홀에서 5번 유틸리티를 잡았다. 그린은 단단하고 불친절



세인트앤드루스 링크스 주빌리코스의 18번 홀 전경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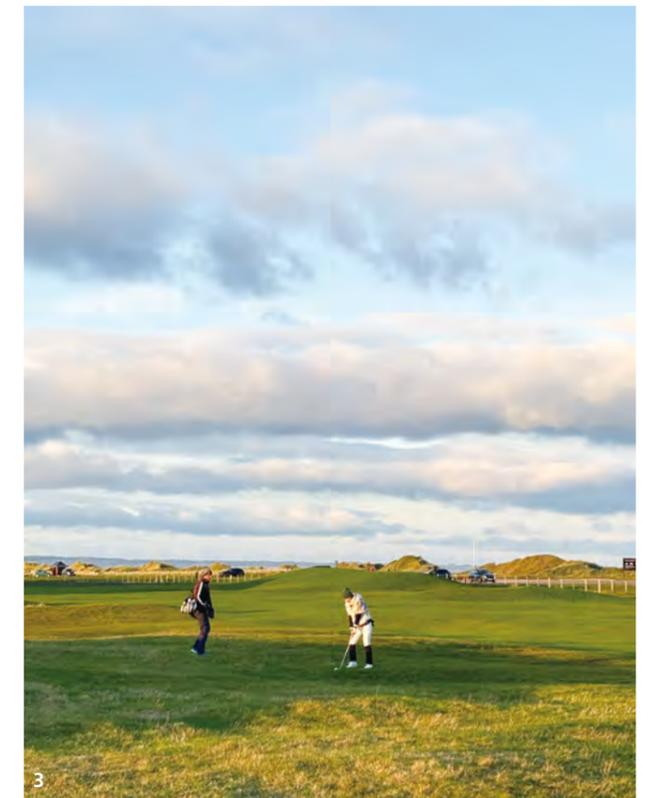
2

했다. 공을 쉽게 받아주지도, 적당한 거리감을 허용하지도 않았다. 바람이 워낙 강해 그린에서 에이밍한 공이 다시 움직이기 일쑤였다. 거의 매 홀 스리 퍼트가 거듭되면서 투 퍼트에 성공해도 버디를 한 듯한 기분이 들었다.

해외 무대에 도전한 프로들을 만나면 한결같이 “쇼트 게임에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세인트앤드루스에 와서야 그 말을 실감했다. 파인페스큐 잔디로 이뤄진 페어웨이는 워낙 타이트한 탓에 그린과 구분이 안 될 정도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어프로치에서 캐디는 7번 또는 8번 아이언을 사용한 범프 앤드 런을 권했다. 127m 거리의 9번 홀(파 3), 60m를 앞둔 세컨드 샷에서 7번 아이언으로 롱 퍼트 하듯 쳤다. 그린까지 힘차게 굴러간 공은 핀 한 발짝 옆에 멈춰 섰다. 이날의 유일한 파. 브라이언은 스코어 카드에 3을 쓰고 동그라미를 쳐주며 “사실상 버디”라고 추켜세웠다. 동반자와 함께 “캐디가 없었다면 어프로치 상황에서 무조건 56도를 잡았을 텐데, 그야말로 최악의 라운드가 되었을 것 같다”고 몇 번이나 한국어로 몰래 말을 주고받았다.

북해를 왼편에 두고 나란히 펼쳐지는 그림 같은 8번 홀(파 4), 홀 너머에서 양 떼가 풀을 뜯고 있는 코스를 지나며 이 라운드가 끝나지 않길 바라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들뜬 기분은 13번 홀(파 3) 이후 빠르게 무너졌다. 그늘집에서 생맥주로 에너지를 충전한 후 카트로 이동해온 한국인 아마추어 골퍼에게 거센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쉽없이 걸어야 하는 세인트앤드루스의 코스는 너무나 가혹했다.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14번 홀부터 샷이 이리저리 터졌고, 18번 홀 그린에서는 후들거리는 다리로 짧은 퍼트를 몇 번이나 놓쳤다. 베테랑 캐디 덕에 공 하나로 18홀 플레이를 마친 것은 의외의 성과였다. 다만 스코어는 나와 브라이언의 비밀로 하고 가슴에 묻었다.

- 1. 올드코스 상징 스윙컨 다리
- 2. 세인트앤드루스 링크스의 클럽 하우스
- 3. 북해와 뉴코스 사이에 길고 가늘게 자리한 주빌리코스. 페어웨이가 좁고 해풍의 영향을 많이 받아 도전적이면서 풍광이 멋진 코스로 통한다.



3

스윙컨 다리에서 우즈의 눈물을 떠올리다

골프장을 나서며 입구와 연결된 해변으로 갔다. 육지를 집어삼킬 듯 거센 파도는 “링크스 맛이 어떠냐”며 껄껄 웃는 듯한 느낌이었다. 골프가 인간과 자연의 싸움이라지만, 애초에 싸움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가르침을 얻었다. 일요일 아침, 올드코스 순례에 나섰다. 비록 비가 조금씩 흩뿌렸지만 전날의 강풍은 거짓말처럼 사라져 있었다. 2022년 타이거 우즈가 디 오픈 챔피언십에서 커트 탈락하며 쓸쓸하게 넘어오던 스윙컨 다리에 섰다. 생각보다 작은 돌다리, 하지만 여기 서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에 훈장을 하나 단 듯했다. 1번 홀 티잉 구역, 18번 홀 그린, 14번 홀의 헬 벙커. 이 모든 것을 눈과 가슴에 담고 ‘올드 톰’ 톰 모리스의 동상을 마주했다. 방직공의 아들로 태어나 그린 키퍼를 거쳐 지금의 18홀 코스를 만들고, 디 오픈에서 네 차례나 우승한 골프의 전설. 그에게 언젠가 머지않은 날 다시 만나자며 작별 인사를 건넸다. ●



많은 아마추어 골퍼의 고민 어프로치 정타, 세 가지만 기억하자!

어프로치 정타, 이 작은 스윙이 플레이어를 웃게도 눈물짓게도 한다. 프로 선수에게도 파 세이브율은 매우 중요한 요소인 만큼 어프로치는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자 경기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 순간이다. 연습장에서는 완벽하던 스윙이 잔디 위에만 서면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추어 골퍼가 공통적으로 겪는 미스 패턴을 정리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실전 훈련법을 소개한다.

Writer_ 이루나 Photo_ 이루나, 프리픽

티 샷과 세컨드 샷은 잘했는데 그린 주변에서 이른바 온탕, 냉탕으로 타수를 다 잃었다는 경험은 아마추어 골퍼라면 한 번쯤 겪었을 법한 이야기다. 어프로치는 그린 공략을 하다가 나온 실수를 만회해 어떻게든 핀에 가까이 붙여야 한다는 목적이 있어 플레이어에게 굉장한 압박감으로 다가온다. 따라서 어프로치는 프로 선수에게도 만만

치 않은 샷이다. 상황에 따라 구사할 줄 알아야 하는 샷과 스킬이 무궁무진하고, 공이 놓인 잔디의 상황과 그린의 지형도 중요하다. 그러나 열심히 연습한다면 어프로치만큼 빠른 성과를 볼 수 있는 샷도 없다. 어떻게 쳐야 할지 자세를 배우고, 열심히 연습한다면 정타는 문제없이 칠 수 있게 될 것이다.

아마추어 골퍼에게 나타나는 미스 패턴 3

우선 아마추어 골퍼는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미스 패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래 세 가지 체크리스트를 통해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해보자.

미스 패턴 1 불분명한 체중 위치

어프로치는 거리를 멀리 보내야 하는 샷이 아니라 '정확한 거리'를 보내야 하는 샷이다. 그러므로 어프로치는 스윙하는 동안 롱 게임처럼 체중 이동을 자주 요구하지 않는다. 어프로치 중에서도 20m 내 그린 주변 어프로치는 스윙하는 동안 체중 이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드레스 때 왼발에 체중을 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체중이 왼발에 실린 상태에서 몸의 회전이 생겨야 한다. 그러나 어프로치 정타가 나오지 않는 골퍼들을 살펴보면 체중이 가운데 있거나, 되레 오른발에 실려 있는 경우가 많다. 체중이 왼발이 아닌 가운데 혹은 오른발에 실려 있다면 정타를 치기 위해 왼쪽으로의 체중 이동이 요구되고, 그 상태에서 정타를 친다 해도 골퍼가 보내고자 의도한 거리보다 훨씬 멀리 나갈 것이다. 만약 나의 미스 패턴이 정타에 맞지 않거나, 혹은 정타에 맞았을 때 대부분 거리가 많이 나가 핀을 지나간다면 어드레스 때 내 체중이 어느 발에 실리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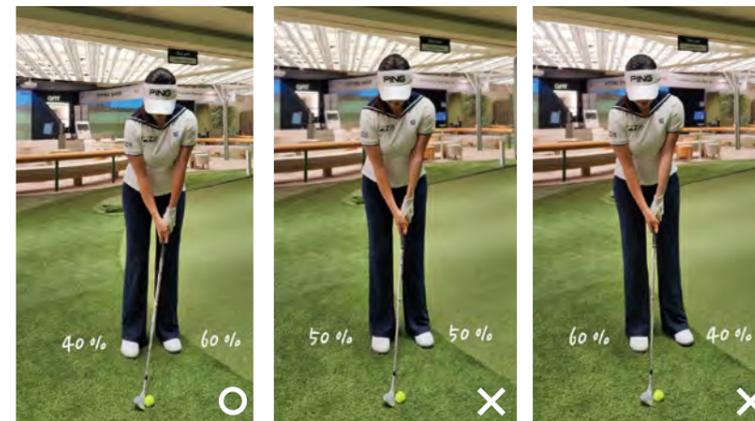
백스윙 시 롤링 현상의 바른 예시와 잘못된 예시

미스 패턴 2 치명적인 롤링(Rolling) 현상

백스윙 시 헤드를 먼저 출발시키려고 하다 보면 클럽이 정상 궤도에서 이탈해 뒤로 빠지면서 손과 몸이 멀어지고, 헤드가 손과 같은 선상이 아닌 뒤에 위치하게 된다. 더불어 클럽 페이스까지 돌아간다. 이 롤링 현상은 비단 클럽 페이스나 궤도의 문제만을 야기하지 않는다. 뒤로 빠지는 클럽에 의해 왼쪽 어깨가 들린다. 잘못 뺀 클럽이 척추각마저 들리게 하는 것이다. 들린 척추각은 보통 토핑이 날 것이라 생각하지만, 토핑만 나오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보상 동작에 의해 손목을 풀게 되면 뒤땅까지 초래한다. 더불어 손보다 뒤로 빠진 클럽 헤드는 골퍼가 가장 무서워하는 샷, 바로 샹크(Shank)를 만든다. 만약 샹크가 자주 발생하는 골퍼라면 백스윙 시 롤링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미스 패턴 3 무너진 다운 스윙의 순서

어프로치를 할 때는 지켜야 하는 다운 스윙 순서가 있다. 다운 스윙 시 올바른 순서는 몸의 회전 → 손 → 클럽 헤드 순으로 내려오는 것이다. 하지만 정타가 맞지 않아 곤혹을 겪는 골퍼는 보통 이 순서를 지키지 않는다. 몸의 회전이 없어서 손목이 풀리거나, 몸의 회전이 너무 빠르거나 회전 범위가 과도해서 클럽이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 클럽 헤드가 먼저 내려와서 손목이 풀리거나, 손이 너무 급해서 몸



어드레스할 때 무게중심의 이동이 올바르게 잡힌 자세와 그렇지 못한 자세



다운 스윙 시 올바른 순서와 잘못된 순서

과 팔의 박자가 안 맞는 경우, 머리가 뒤로 젖혀져 체중이 오른발에 남는 경우 등이다. 이런 상황은 모두 정타를 치기 어려운 요소들이다. 양상은 제각각이지만 이유는 같다. 바로 다운 스윙 순서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많은 골퍼가 고민하는 어프로치 시 손목 힌지 풀림도 같은 맥락이다. 다운 스윙을 할 때 몸이 먼저 회전한 후 손이 내려오고 그다음 클럽 헤드가 따라와야 하는데, 반대로 클럽 헤드가 먼저 내려온다.

손목의 힌지를 유지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유지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 이유를 모른다면 풀리는 손목의 힌지를 무조건 고정하려고만 하거나, 쓰지 않으려 노력한다. 손목은 고정하거나 쓰지 않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잘 써야 한다. 그러려면 다운 스윙의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 올바른 다운 스윙 순서는 적절한 손목 쓰임을 만들 수 있다. 평소 이 같은 고민을 가진 골퍼라면 다운 스윙 순서가 올바르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프로치 정타를 위한 훈련 방법

아마추어 골퍼가 겪는 문제점들을 파악해봤다. 아래 연습 방법을 꾸준히 반복한다면 정타는 멀고도 힘찬 길이 아니라, 가깝고도 쉬운 길이 될 수 있다.

Training1 드라이버 커버를 이용한 올바른 체중 실기

우선 드라이버 커버를 3단으로 접는다(사진 1). 그다음 3단으로 접은 드라이버 헤드 커버를 오른발로 밟고 어드레스를 한다(사진 2). 꼭 드라이버 헤드 커버일 필요는 없다. 골프공을 두어도 좋고 두꺼운 책이어도 된다. 핵심은 오른발 뒤꿈치 높이를 높임으로써 체중이 왼발에 실리게 유도하는 것이다. 체중은 왼발:오른발이 6:4의 비율이면



충분하다. 이때 주의할 점이 두 가지 있다. 첫째, 도구를 이용해 오른발 높이를 높여도 습관적으로 체중이 오른발에 실릴 수 있다. 도구를 누르고 서지 않도록 오른발은 도구 위에 살포시 없는 느낌으로 연습해야 한다. 둘째, 공을 치고 나서 체중이 오른발로 가지 않아야 한다. 다운 스윙 혹은 피니시 때 체중이 오른발에 실리면 결국 정타를 칠 수 없다. 만약 피니시 때 체중이 왼발에 잘 실려 있는지 모르겠다면 오른발 뒤꿈치를 땅에서 잘 떼고 있는지 확인하면 된다(사진 3, 4).

Training2 얼라인먼트 스틱을 이용해 롤링 현상 타파하기

어드레스 때 얼라인먼트 스틱과 클럽을 포개어 함께 잡는다(사진 5). 백스윙 시 얼라인먼트 스틱이 떨어지지 않게 주의한다(사진 6). 얼라인먼트 스틱을 클럽과 함께 잡은 상태에서 얼라인먼트 스틱과 그립이 사진과 같이 몸에서 떨어지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만약 떨어진다면 백스윙 시 헤드가 뒤로 빠지면서 롤링 현상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사진 7).

Training3 롱 티를 이용해 손목 힌지 유지하기

왼손 장갑을 착용한 뒤 손등 위치에 롱 티를 꽂아준다(사진 8). 이때 스윙을 하는 동안 롱 티가 손목을 찌르지 않게 주의한다(사진 9, 10). 다운 스윙 때 헤드가 먼저 움직인다면 스쿠핑 동작으로 롱 티가 손목을 찌르게 된다(사진 11, 12). 잘못된 다운 스윙 순서 때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점은 바로 과도한 스쿠핑 동작이다. 이는 불안정하고 일관성 없는 볼 콘택트를 만든다. 그린 주변에서 샌드 웨지^{SW}를 사용하지 못하는 아마추어 골퍼가 많은데, 대부분 과도한 스쿠핑 동작을 하고 있다. 스쿠핑은 때로 뒤땅을, 때로는 토핑을 만든다. 이는 반드시 다운 스윙 순서가 잘못된 것이다. 스쿠핑을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로브 샷, 벙커 샷에서는 의도적으로 사용한다. 하지만 그린 주변 피치 샷(공이 떠서 가는 거리가 굴러가는 거리보다 많은 샷)에 어려움을 겪는 아마추어 골퍼는 스쿠핑 동작이 과하다. 손목 힌지는 유지한 채 쓰는 것과 유지하지 못한 채 쓰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다. 이 훈련 방법은 손목 힌지가 유지되지 않았을 때 롱 티가 손등을 찌러 즉각적인 피드백을 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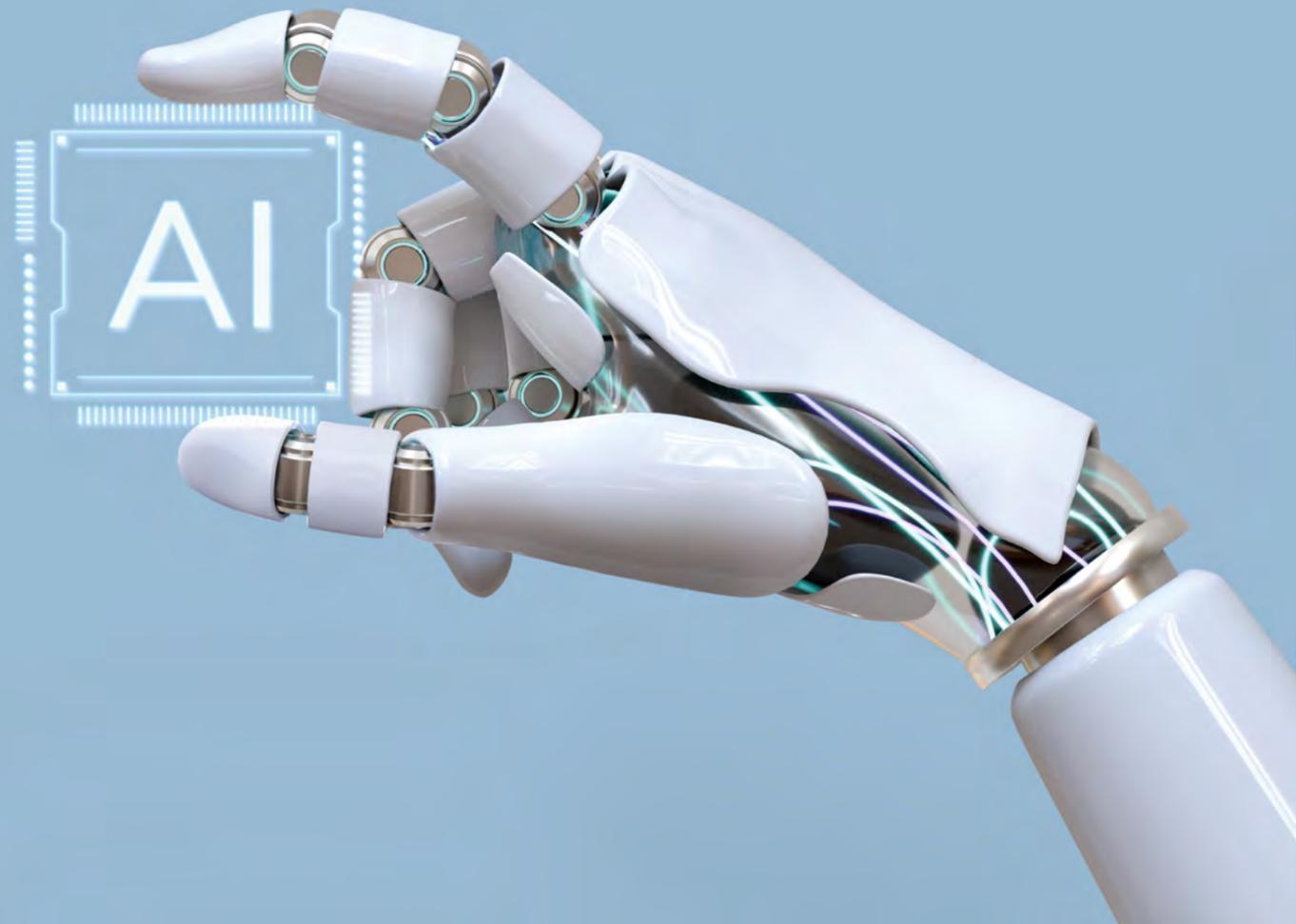
그린 주변 어프로치는 스코어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다. 정타는 복잡한 기술이 아니다. 올바른 체중 위치, 손목 롤링 현상 금지, 다운 스윙 순서 이 세 가지만 지키면 누구나 안정적인 어프로치를 만들 수 있다. 꾸준히 훈련해 '온탕·냉탕 어프로치'의 악몽을 끝내보자. ●



2026 트렌드 미리 보기

새해 가장 큰 화두는 뭐니 뭐니 해도 AI다. 이와 함께 AI 사회의 특징인 최신성, 복제성, 효율성에 대한 반발로 생기는 움직임도 거세다. AI 대전환을 둘러싸고 정반합에 의해 탄생한 트렌드를 살펴보자.

Editor_ 한소영 Photo_ 언스플래시 Reference_ <2026 트렌드>(김난도 외 지음, 미래의창)



1 인간의 역할은 무엇일까 휴먼인더루프 Human-in-the-loop

“모든 산업이 AI의 영향을 받는다”는 말은 결코 과언이 아니다. 앞으로 인간과 AI의 역할 분담에 관한 철학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시되는 것이 ‘휴먼인더루프’ 시스템이다. 휴먼인더루프는 인공지능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인간이 적어도 한 번은 개입해야 한다는 AI 활용 철학을 일컫는다. 휴먼인더루프 시스템 안에서 인간은 인공지능에 명령을 내리며, 이를 검증하고, 최종 완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결과물의 정확성을 높이고, 창조적 감성을 부여하며, 최종 결정에 대한 윤리적 판단의 책임을 진다. 결국 휴먼인더루프는 인간의 일을 AI가 대신하는 개념, 즉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개념이 아니라, 인간과 AI가 각자 강점을 바탕으로 최적의 결과물을 만드는 협업 시스템을 가리킨다. 본격적인 AI 시대의 교두보가 될 2026년은 인간 지능과 AI의 역할이 어떻게 설정될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2 클릭 없이 모든 것이 가능한 세상 제로클릭 Zero-click

무언가를 찾기도 전에 AI가 먼저 제시해 소비자의 클릭 수가 대폭 줄어드는 현상을 ‘제로클릭’이라 부른다. 챗지피티(ChatGPT)나 제미니(Gemini) 등을 자주 사용하지 않더라도 앱을 통해 쇼핑하거나, OTT 등을 시청한다면 이미 제로클릭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예전에는 직접 검색창에 검색어를 넣고 클릭한 후 원하는 것을 찾아야 했다면, 요즘에는 검색하기도 전에 내가 관심을 보일 것들을 AI가 미리 각 피드에 제시한다. 사용자는 능동적으로 찾고 선택하기보다 시스템이 먼저 판단하고 제안하는 대로 선택하게 된다. 검색이 사라지는 시대에 광고와 마케팅은 어떻게 해야 할까? 제로클릭 현상을 중심으로 한 광고, 마케팅, 판촉, 영업 등 판매와 관련한 모든 업무의 변화가 예상된다.

3 내 기분을 맞춰봐 필코노미 Feelconomy

과거에는 기분에 따라 하는 행위나 선택은 '별생각 없이' 하는 것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생각 없는' 생각을 알아차려야 하는 임무가 각 산업에 주어졌다. 소비자가 구매의 주요 요인이던 필요, 의미, 경험에 더해 기분이나 감정을 기준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는 경향이 커졌기 때문이다. 기분은 경제를 움직인다. 이러한 현상을 기분 경제, '필코노미'라고 명명한다. 한 예로 요즘 사람들이 영화를 고르는 기준이 꽤 달라졌다. 과거에는 영화의 작품성이나 감독 및 배우가 누구인지에 따라, 어떤 장르 혹은 내용인지에 따라 관람할 영화를 골랐다면 지금은 현재 내 기분이 가장 중요하다. 좋아하는 감독의 작품이지만 현재 기분에 맞지 않으면 다른 영화를 선택한다. 배달의민족 조사에 따르면 사용자의 32%가 메뉴를 정하지 않은 채 배달 앱을 연다고 한다. 제품 개발에서는 '무엇을 만들까'가 아니라, '어떤 기분을 선사할까'라는 질문이 부상하고 있다.



4 트렌드는 없다 픽셀라이프 Pixelated Life

모두가 함께 따르던 메가트렌드가 점점 사라져가는 걸 느낄 것이다. 어제 떠오르던 유행이 한 계절도 지나지 않아 사라진다. "트렌드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하나만 답할 수 없을 만큼 각 분야의 트렌드는 차고 넘친다. 파편화된 수많은 마이크로트렌드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마치 디지털 이미지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인 픽셀같이 작고 다양한 트렌드를 향유하는 방식을 '픽셀라이프'라고 부른다. 픽셀라이프는 먹어보고 싶은 음식을 소용량으로 다양하게 맛보는 '최소 단위 소비'와 하나를 깊게 경험하는 것보다 많은 대상을 알게 알더라도 경험의 반경을 넓혀가는 '다층적 경험'을 추구한다. "트렌드는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각종 트렌드가 빠르게 달라지는 지금, 유행을 향유하기 위한 방식으로 픽셀라이프는 선택이 아닌 필수일지 모른다.

5 호모헌드레드 시대 준비 건강지능 Health Intelligence

건강이 중요하다는 건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였지만, 100세를 사는 호모헌드레드(Homo Hundred) 시대를 맞이해 전 세대에 걸친 건강관리를 통해 삶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건강지능'이 필수 역량으로 떠올랐다. 건강지능이란 자신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탐색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활용하면서 건강관리를 실천하는 역량을 말한다. 인체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식단, 운동, 멘털 등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특징이다. 필요에 따라 현대 의약품 및 시술 등 의료적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고, 아프기 시작한 시점이 아니라 웰니스와 마음 챙김 등 라이프스타일 전반에서 항시적으로 건강을 고려한다. 건강은 점점 더 거대한 비즈니스가 될 전망이다.



6 고전을 다시 보다 근본이즘 Returning to the Fundamentals

'진짜'의 가치가 부상하고 있다. '진짜'라는 것은 정의하기 나름이지만, 주로 '고전'이나 '원조'에 해당한다. 급변하는 AI 시대에서 결코 변하지 않는 고전적 가치와 믿을 수 있는 원조에 대한 갈망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추구를 '근본이즘'이라고 한다. 근본이즘은 AI 시대에 나타나는 최신성·복제성·효율성에 대해 반발하면서, 인간이 일궈낸 전통을 재조명하며, AI가 따라 할 수 없는 원조만의 아날로그적 낭만을 추구한다. 유행을 넘어서는 클래식을 보고 싶다는 열망은 출판계에서는 고전문학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됐다. 국내 출판계에서는 고전문학이 예상치 못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20대의 구매가 두드러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조지 오웰의 <1984>, 알베르 카뮈의 <이방인> 등 삶의 본질을 탐구하는 작품의 인기가 높다. 오랜 시간을 견디며 살아남은 텍스트에서 진짜의 비법을 찾고 싶은 것은 아닐까. ●

인상주의에서 모더니즘까지 빛이 예술로 바뀐 순간

19세기 후반 인상주의에서 20세기 초 모더니즘에 이르기까지 변화한 예술에 대한 인식을 조명하는 전시 <인상주의에서 초기 모더니즘까지, 빛을 수집한 사람들>이 열린다.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이 소장한 로버트 리먼 컬렉션이 국내 최초로 공개되어 관람객과 만난다.

Editor_ 한소영 Photo_ 국립중앙박물관

평범한 소재에서 포착해내는 순간의 빛을 다채로운 색감으로 그려내는 미술 사조인 '인상주의'를 새롭게 조명하는 전시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다. 미국 금융가 로버트 리먼 Robert Lehman이 수집한 19세기 후반 인상주의부터 20세기 초 모더니즘에 이르는 프랑스 회화를 소개하는 전시다. 인상주의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사랑받는 미술 사조로 꼽힌다. 19세기 후반은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예술가의 시각이 근본적으로 바뀌던 시기였다. 이런 변화의 중심에는 인상주의가 있었고, 그 시기에 탄생한 다채롭고 개성 넘치는 작품들은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 19세기 후반 인상주의는 초기 모더니즘으로 이어지는 예술의 전환기이기도 하다. 이번 전시는 이 점에 주목해 화가들이 전통 장르인 누드화, 초상화, 풍경화 안에서 어떤 새로운 변화를 시도했는지 조명한다. 관람객은 모더니즘이라는 새 시대를 여는 맥락에서 인상주의를 새롭게 감각할 수 있을 것이다.

순간의 빛에서 개성이 담긴 초상화까지

전시는 먼저 17세기 네덜란드의 거장 얀 페르메이르의 작품을 모사한 살바도르 달리의 '레이스를 뜨는 여인'으로 프롤로그 '빛의 여정'을 시작한다. 일상적 노동을 나타내는 작품 속 여인의 손놀림은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지만, 주변은 단순한 형태로 왜곡되어 있다.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는 초현실적 표현을 통해 노동의 반복성에 담긴 인간의 불안함을 은유한다. 감각을 통해 순간을 표현하는 인상주의가 있었기에 그것의 왜곡을 시도하는 모더니즘, 그리고 초현실주의 미술이 탄생할 수 있었음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어 1부 '더 인간다운, 몸'에서는 이전까지 신화 속의 이상적인 인체에서 벗어나 현실적이고 감각적인 몸을 탐구한 여정을 보여준다.

인상주의는 상류층 중심의 초상화를 시민사회의 다양한

1. 오귀스트 르누아르, '해변의 사람들', 캔버스에 유화, 52.7×64.1cm, 1890, 로버트 리먼 컬렉션(1975)
2. 살바도르 달리, '레이스를 뜨는 여인'(페르메이르 작품을 모사), 캔버스에 유화, 23.5×19.7cm, 1955, 로버트 리먼 컬렉션(1975)
3. 오귀스트 르누아르, '피아노를 치는 두 소녀', 캔버스에 유화, 111.8×86.4cm, 1892, 로버트 리먼 컬렉션(1975)
4. 피에르 오귀스트 코, '봄', 캔버스에 유화, 213.4×127.0cm, 1873, 스티븐 & 알렉산드라 코언 기증(2012)



테오도르 루소, '연못', 목판에 유화, 34.3×51.8cm, 1855, 로버트 리먼 컬렉션(1975)



인물상으로 확장하기도 했다. 2부 '지금의 얼굴, 초상과 개성'에서는 사실적 묘사를 넘어 인물의 개성과 감성을 표현한 인상주의 작품이 등장한다. 순간에 서사를 부여하며, 이면의 사회적 맥락을 조명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그야말로 전통과 변화가 공존하던 예술의 흐름을 보여준다.

순간이 물결이 되는 예술

3부 '영원한 순간, 자연에서'는 자연을 배경이 아닌 탐구의 대상으로 바라본 화가들의 각기 다른 시선을 보여준다. 4부 '서로 다른 새로움, 도시에서 전원으로'에서는 19세기 중반, 재개발 이후 변화한 근대도시 파리와 교외 및 전원의 풍경이 작품에 담겨 있다. 정체된 듯 느리지만 다채로운 빛깔을 보여주는 전원 풍경과 활기 넘치는 듯 보이지만 빛깔을 잃은 듯한 도시 풍경이 담긴 작품이 서로 대비된다. 엇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이 작품들은 그 자체

로 시대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다. 5부 '거울처럼 비치는, 물결 속에서'는 프랑스를 둘러싼 강과 바다 등 물가 풍경을 담은 작품을 선보인다. 화가들은 물 위에 비친 빛과 색의 변화를 관찰하고 실험을 거듭했다. 물결을 그리는 필치가 담백할수록 강과 바다는 더 강렬하게 요동치는 듯 다가오는 것 같다.

열정적 수집가가 바라본 인상주의와 초기 모더니즘

이번 전시 출품작 대부분은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의 대표 소장품 '로버트 리먼 컬렉션(Robert Lehman Collection)'에 속한다. 전시는 로버트 리먼 컬렉션을 중심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이 한국 관람객의 시선에 맞게 새롭게 재구성한 것으로, 무엇보다 이번 전시가 특별한 점은 로버트 리먼이라는 한 수집가의 안목으로 '인상주의에서 초기 모

니즘까지'라는 주제를 다룬다는 점이다.

전시장 통로에서는 리먼 가문의 수집 역사를 다룬 영상을 상영해 리먼 컬렉션 형성 과정을 보여준다. 관람객은 이번 전시를 통해 오래도록 빛을 발하는 화가와 수집가의 예술에 대한 열정을 한층 가까이에서 느껴볼 수 있을 것이다. ☹

1. 알프레드 시슬레, '밤나무 길', 캔버스에 유화, 50.2×61.0cm, 1878, 로버트 리먼 컬렉션(1975)
2. 알베르 마르케, '햇빛을 받는 알제리의 부지 항구', 캔버스에 유화, 64.7×80.0cm, 1925, 로버트 리먼 컬렉션(1975)
3. 카미유 피사로, '겨울 아침의 몽마르트르 대로', 캔버스에 유화, 64.8×81.3cm, 1897, 어니스트 G. 비터를 기리기 위해 캐스린 S. 비터 기증(1960)
4. 카미유 피사로, '퐁투아즈에서의 수확', 캔버스에 유화, 46.0×56.2cm, 1881, 로버트 리먼 컬렉션(1975)
5. 로버트 리먼, 1946년경

관람 안내

전시 기간 2026년 3월 15일까지
전시 장소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시실 1
관람 시간 10:00~18:00(월·화·목·금·일요일), 10:00~21:00(수·토요일)
관람 요금 성인 1만9,000원, 청소년 1만6,000원, 어린이(7~12세) 1만1,000원, 유아(4~6세) 7,000원, 경로우대(65세 이상) 8,000원
전시 작품 오귀스트 르누아르 '피아노를 치는 두 소녀', 빈센트 반 고흐 '꽃 피는 과수원' 등 회화·드로잉 총 81점



독서광 박찬욱 감독의 책 읽고 만든 영화, 영화로 만들고 싶은 책



세계적 거장 박찬욱 감독을 사로잡은 책들은 그의 영화처럼 독특하기 그지없다. 그가 만든 영화를 보면 책이 읽고 싶어진다. 영화를 통해 그의 독서 일지를 엿본다.

Editor_ 한소영 Photo_ 한경DB

박찬욱 감독은 열정적 애독가로 알려져 있다. 그의 히트작 상당수가 소설이나 만화를 각색한 작품이다. 박상연의 <DMZ>를 각색한 <공동경비구역 JSA>를 비롯해 쓰치야가론의 만화 <올드 보이>에서 설정을

가져온 <올드 보이>, 에밀 졸라의 소설 <테레즈 라캥>에서 영감을 받아 뱀파이어 코드로 재해석한 <박쥐>, 세라 워터스의 소설 <핑거스미스>의 기본 이야기 구조를 가져온 <아가씨>는 모두 책에서 시작된 작품

이다. 그동안 박찬욱 감독의 영화가 화제작에 오르면서 다시 원작 소설이 주목받는 현상이 반복되었다. 그리고 지난해 개봉한 <어쩔 수가 없다>까지.

영화 <어쩔 수가 없다>는 미국 추리소설가 도널드 웨스트레이크(Donald E. Westlake)의 추리소설 <엑스>를 각색한 영화다. 박찬욱 감독은 2019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엑스>를 영화화해 자신의 대표작으로 만드는 것이 숙원이라 말했고, 드디어 지난해 영화가 개봉한 것이다. 이 책의 무엇이 박찬욱 감독을 사로잡은 걸까?

박찬욱 감독의 영화가 독특한 만큼이나 그가 고른 책 <엑스> 역시 그렇다. 우선 저자 도널드 웨스트레이크는 작품만큼이나 독특한 삶을 살았다. 그는 1954년 <미스터리 픽션 매거진>에 단편소설을 발표하기까지 무려 200번도 넘는 고배를 마셨다. 그러나 이후 1960년 첫 번째 장편소설 <머서네리 The Mercenaries>를 발표하며 범죄소설 분야에서 독보적 존재로 군림했고, 100권도 넘는 작품을 발표했다. 여러 개의 필명을 가진 작가로도 유명하다. '악당 파커' 시리즈를 쓴 리처드 스타크가 가장 널리 알려진 이름이다. 미국추리작가협회가 시상하는 권위 있는 문학상 '에드거상'은 무려 세 번이나 수상했다. 그러다가 2008년 12월 31일 멕시코에서 휴가를 즐기던 중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엑스>는 오랜 세월 제지 회사에서 평범하게 근무하며 살아가던 중산층 가정의 삶이 갑작스러운 해고로 얼마나 피폐하게 변하는지, 그리고 재취업을 위해 인간이 어떤 위험한 일까지 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면서 현대 자본주의사회의 비정함을 그린 소설

이다. 어쩐지 200번도 넘게 고배를 마신 작가의 이력이 소설 속 등장인물이 겪는 일들과 겹쳐지기도 한다. 이 책의 제목인 엑스^{ax}는 '도끼'라는 뜻 외에 '정리 해고'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영화로 만들고 싶은 한국 소설은

2025년 서울국제도서전을 찾은 박찬욱 감독은 대담 무대에서 앞으로 영화로 만들고 싶은 소설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그는 망설임 없이 한강의 <소년이 온다>, 신경숙의 <외판방>, 박경리의 <토지>, 이문구의 <관촌수필>, 김훈의 <칼의 노래>를 답으로 내놓았다. <소년이 온다>를 두고 첫 장을 읽고 나서 이미 걸작임을 느꼈다고 감상을 밝혔다. 박찬욱 감독이 영화화한 소설을 읽으면서 과연 소설 속 어떤 부분에서 영화화할 결심을 했을지 유추해보는 것도 꽤 흥미로운 것이다.☺

2025년 개봉한 박찬욱 감독의 영화 <어쩔 수가 없다> 포스터



<엑스>

도널드 웨스트레이크 지음,
최필원 옮김, 오픈하우스

주인공인 버크 테보레는 중산층의 삶을 유지하고 싶다는 욕망과 절대 나락으로 떨어지고 싶지 않다는 공포에서 벗어나려고 미래의 경쟁자들을 말 그대로 '제거'해나간다. 기업이 이윤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정리 해고를 행하는 것과 테보레가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살인은 어쩔 수가 없다"며 벌이는 행위가 겹쳐진다.



<소년이 온다>

한강 지음, 창비

한강이 발표한 여섯 번째 장편소설. 2024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한 대표작으로 꼽힌다. 1980년 5월 광주를 한강만이 풀 어낼 수 있는 방식으로 새롭게 조명하면서,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처절한 장면들을 핏진하게 묘사하고, 계엄군과 맞서 싸우던 중학생 동호를 비롯한 등장인물을 통해 5·18 전후로 고통받는 이들의 세계를 생생하게 그려냈다.

혈당치가 조금 높으네요



전문가들은 이 말을 들은 순간, 이미 당뇨병 환자라 생각하고, 당장 혈당 관리를 시작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아직 경계 단계라거나, 자각증상이 없다고 방치하면 혈당은 몇 년 후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Editor_ 한소영 Photo_ 언스플래시

‘당뇨병’ 하면 흔히 살찐 중년 남성 이미지를 떠올리지만, 그야말로 오해다. 최근 혈당치가 급격히 오른다는 의미의 ‘혈당 스파이크’라는 말이 널리 쓰이고, 혈당 스파이크를 막기 위해 식사할 때 채소류부터 먹는 식습관이 대중의 상식이 될 정도로 남녀노소가 가리지 않고 혈당과 건강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긴 했지만, 당뇨병 환자는 여전히 늘고 있는 상태다. 대한당뇨병학회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50년

에 당뇨병 환자 수가 591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으나, 전망보다 30년 앞당겨진 2020년에 이미 600만 명을 넘어섰다. ‘당뇨병 전 단계’까지 포함하면 2,000만 명이상이 관리가 필요하다고 한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음식에는 양념갈비·불고기·떡볶이·양념치킨 등 단맛이 강한 것이 많고,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식탁 위 가공식품의 자리는 점점 넓어지고 있다. 모두 혈당 관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매일의 식사법과 음식 선택법

“혈당 수치를 개선하려면 균형 잡힌 식사를 하라”고 하지만, 실제로 무엇을 먹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 우선 혈당이 급하게 오르내리는 롤러코스터 현상을 피해야 한다. 대체로 음식은 천천히 씹어 먹을 수 있는 고체 형태가 좋으며, 단백질·지방·섬유소가 골고루 함유된 것이 좋다. 지방은 혈당이 오르는 속도를 더디게 하므로 탄수화물 섭취 시 지방산을 함께 섭취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 혈당 관리에 좋은 음식으로는 샐러드, 삶은 달걀, 요구르트, 견과류, 올리브 오일 등이 있다. 그러나 이때도 단맛이 나는 샐러드 드레싱은 도움이 안 되며, 많은 양의 견과류 섭취 또한 주의해야 한다. 또한 지나치게 짠 음식을 피하고, 싱겁게 조리해 먹어야 좋다.

혈당을 낮추기 위해 탄수화물을 제한하기도 하지만, 무조건 옳다고만 할 수는 없다. 몸 안에서는 ‘당신생糖新生’이라 불리는 대사 작용이 일어나는데, 탄수화물이 아닌 단백질이나 지방을 원료로 하여 포도당(에너지)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당신생은 에너지 효율이 매우 낮다는 단점이 있다. 게다가 당신생이 원활히 이뤄지려면 철분과 비타민 B군이 필요하다. 따라서 철분이 부족한 사람이 쌀 같은 주식류의 탄수화물을 지나치게 줄이면 위험할 수 있다.

효과가 나타나는 운동 타이밍

규칙적 운동은 전신의 혈액순환을 개선해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 운동은 하루 세끼 식사를 한다고 고려할 때 식후 1~3

시간 사이에 하는 것이 적당하다. 전문가들은 식후 30분 걷기를 추천한다. 식곤증을 예방하는 데도 좋다. 30분 시간 내기가 어렵다면 세끼 식사 후 10분씩 걸어 30분을 채우는 것도 효과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운동할 엄두를 못 내는 사람도 많다. 실외 환경이 혹독한 한겨울에는 더욱 그렇다. 하지만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 또한 무수히 많다. 혈당이 높은 이유 중 하나는 인슐린 감수성^{Insulin Sensitivity}이 낮아 혈당을 내리는데 더 많은 인슐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 근력 운동이다. 근육량이 늘어나면 그만큼 근육의 에너지원인 포도당 소모도 늘어나 몸속의 잉여 포도당이 줄고 혈당이 조절된다. 실내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푸시업이나 코어 운동이 도움 된다. 의자에 앉아 목이나 어깨, 허리 등을 가볍게 펴주는 스트레칭 역시 도움이 된다. 혈당을 관리하는 방법 중에는 오늘 당장,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실천적 방법이 많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조금씩 움직여 혈당 관리를 시작해보자. ●

tip

당뇨병 전 단계 자가 체크

자신은 아직까지 혈당에 문제가 없었다며 안심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숨은 당뇨병’도 있다. 흔히 ‘당뇨병 전 단계’로 일컫는데, 다음 세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바로 혈당 관리에 들어가야 하는 예비군이다. 전문가들은 예비군이나 초기 환자도 당뇨병 환자와 비슷한 수준의 올바른 생활 습관을 갖춰야 한다고 권고한다.

- 20세 이후 체중이 10kg 이상 증가했다.
- 혈압이 조금 높다.
- 가족 중에 당뇨병 병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



WOORI BANK GLOBAL NETWORK



해외 지점

뉴욕지점
TEL 1-212-949-1900
FAX 1-212-490-7146
ADD 245, Park Ave. 43rd Floor, New York, NY 10167, USA

LA지점
TEL 1-213-620-0747-8
FAX 1-213-627-5438
ADD 3360, West Olympic Blvd. Suite 300, LA, CA90019, USA

런던지점
TEL 44-207-680-0680
FAX 44-207-481-8044
ADD 9th Floor, 71 Fenchurch Street, London, EC3M 4BR, UK

동경지점
TEL 81-3-6891-5600
FAX 81-3-6891-2457
ADD Shiodome City Center 10th Floor Higashi-Shimbashi 1-Chome 5-2, Minato-ku, Tokyo

홍콩지점
TEL 85-2-2521-8016
FAX 85-2-2526-7458
ADD Suite 1401, Two Pacific Place, 88 Queensway, Hong Kong

싱가폴지점
TEL 65-6223-5854-6
FAX 65-6422-2000
ADD 10 Marina Boulevard #13-05 MBFC Tower 2, Singapore 018983 Singapore

바레인지점
TEL 973-17-223503
FAX 973-17-224429
ADD P.O. Box 1151, 4th Floor, Entrance 1, Manama Centre Building, Manama, Bahrain

다카지점
TEL 88-02-5881-3270-3
FAX 88-02-5881-3241/3274
ADD Suvastu Imam Square (1st & 4th Fl.) 65 Gulshan Avenue, Dhaka-1212, Bangladesh

구르가온지점
TEL 91-12-4304-6700
FAX 91-12-4304-6730
ADD 1st floor, Salcon Platina Building, MG Road, Sector-28, Sikanderpur, Gurgaon-122001, Haryana, India

첸나이 지점
TEL 91-44-3346-6900
FAX 91-44-3346-6995
ADD Lotte India, 2nd Floor, No.4/169, Rajiv Gandhi Salai(OMR), Kandhanchavadi, Perungudi Taluk, Chennai-600096, Tamil Nadu, India

몰바이지점
TEL 91-22-6263-8100
FAX 91-22-6263-8198
ADD Unit 601, 6th floor, Birla Centurion, Century Mills Compound, Pandurang Budhkar Marg, Worli, Mumbai, Maharashtra-400030, India

시드니지점
TEL 61-2-8222-2200
FAX 61-2-8222-2299
ADD Suite 21.02, 126 Phillip Street, Sydney, NSW, Australia

두바이지점
TEL 971-4-325-8365
TEL 971-4-325-8366
ADD 1102A, Level 11, The Gate Building, East Wing, P.O. Box 506760, DIFC, Dubai, United Arab Emirates

현지 법인

유럽우리은행
TEL +49(0)69 299 254 0
FAX +49(0)69 299 254 099
ADD 29th floor, Messe-Turm, Friedrich-Ebert-Anlage 49, 60308 Frankfurt am Main, Germany

러시아우리은행
TEL 7-495-783-9787
FAX 7-495-783-9788
ADD 8th floor, Lotte Plaza, 8, Novinsky Boulevard, Moscow, 121099, Russia

인도네시아우리소다라은행
TEL 62-21-5087-1906
ADD Treasury Tower 26th, 27th FL, District 8 SCBD Lot 28 Jl.Jend. Sudirman Kav. 52-53, Jakarta 12190, Indonesia

캄보디아우리은행
TEL +855 23 963 333
ADD Buliding 398, Preah Monivong Blvd, Sangkat Boeun Keng Kang 1, Khan Chamkarmon, Phnom Penh 12302, Kingdom of Cambodia

사무소

팔라렘푸르사무소
TEL 60-3-2163-8288
FAX 60-3-2163-9288
ADD 32F, Menara Prestige, Jalan Pinang, 50450, Kuala Lumpur, Malaysia

우리파이낸스 미얀마
TEL 95-01-643798
ADD 115/A, Pyay Road, Saw Bwar Gyee Kone Ward (10 miles), Insein Township Yangon, Myanmar

베트남우리은행
TEL 84-4-7300-6802
FAX 84-4-7300-6806
ADD 34F, Keanganm Landmark 72, E6 Pham Hung Road, Tu Liem Dist, Hanoi Vietnam

브라질우리은행
TEL 55-11-2309-4740
FAX 55-11-3511-3300
ADD Avenida Nacoes Unidas, 14, 171, Crystal Tower, Conj.803, Vila Gertrudes, 04794-000, Sao Paulo-SP, Brasil

홍콩우리투자은행
TEL 852-3763-0888
FAX 852-3763-0808
ADD Rooms 1907-1909, 19/F, Gloucester Tower, The Landmark, 15 Queen's Road Central, Hong Kong

양곤사무소
TEL 95-01-646951
ADD No.115(A) First Floor, Pyay Road, 10 Miles, Insein Township, Yangon, Myanmar

우리헬스뱅크 필리핀
TEL 63-32-415-5265
FAX 63-32-415-5266
ADD Taft Financial Center, Cardinal Rosales Avenue, Cebu Business Park, Cebu City, Cebu

중국우리은행
TEL 86-10-8412-3000
FAX 86-10-8440-0698
ADD Floor 11-12, Block A Building 13, District4, Wangjing East Park, Chaoyang District Beijing China 100102

우리아메리카은행
TEL 1-212-244-3000
FAX 1-212-736-5929
ADD 330 5th Avenue, 3Floor, New York, NY 10001, USA

폴란드사무소
TEL 48-323-07-6417
ADD Uniwersytecka 13, 40-007, Katowice, Poland



WEALTH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경제의 흐름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 금융 전문가를 비롯한 국내외 금융 전문가에게 얻은 발 빠른 정보를 통해 투자와 부에 대한 해안을 지닐 수 있습니다.

※ 본 기사에 포함된 정보는 특정 상품, 서비스 제공 및 투자 권유를 위해 작성한 것이 아니며, 어떠한 내용도 투자, 세금, 법률, 여타 전문 상담 또는 특정한 사실과 문제에 관한 자문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본 자료에 기재된 각종 수익률과 위험, 전망 등은 과거의 수익률을 기초로 작성한 것으로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투자 의사 결정은 고객 스스로 해야 하며, 당사는 투자에 따른 결과를 보장하거나 책임지지 않습니다.



AI 시대, 고용 없는 성장이 가져올 변화

특정 분야기업의 영업이익이 크다고 반드시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을까? AI를 중심으로 한 빅테크 기업의 성장이 고용과 물가안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통화정책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앞으로의 통화정책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불러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Writer_ 최진호(우리은행 WM상품부 Economist) Photo_ 프리픽

AI 투자를 둘러싼 논쟁 지속

AI 투자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2026년에도 AI, ICT 그리고 반도체가 이끌어가는 뜨거운 장세가 예상된다는 것이 금융시장의 메인 컨센서스로 자리 잡고 있으나, AI 과잉투자와 버블론에 대한 경계감도 적지 않은 모습이다. 연준의 주요 인사들과 월가의 구루들이 발언하는 한마디 한마디에 시장 변동성도 함께 확대되고 있으니 글로벌 주식시장의 랠리를 기대하는 가운데서도 한편으로는 취약한 불안심리를 감출 수 없는 모습이다. 그런데 사실 AI를 중심으로 하는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랠리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코로나19 이후 미국 주식시장은 이들 섹터와 일부 종목이 주가지수를 장기간 이끌고 왔음을 부정하기 어렵고, 그러다 보니 슐림에 대한 문제와 가격 부담, 그리고 주가 고점 논란은 늘 상존하고 있다.

2026년 기업 이익 전망은 주가에 긍정적, 통화정책 전망은 다소 불투명

학계와 금융시장에는 주가를 설명하는 여러 이론과 모형이 존재한다. 해당 이론과 모형을 여기서 설명하기는 어렵

다. 하지만 해당 내용들의 공통 핵심 요인을 정리해보면, 가격 부담을 완화해줄 수 있는 요인으로 1) 기업들의 이익이 증가하거나 2) 할인율(금리)이 낮아지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두 요인이 동시에 발생한다면 더욱 좋다. 이런 맥락에서 첫 번째로 미국과 한국 주식시장의 기업 이익 전망치를 살펴보자. S&P500 기업들의 순이익은 2026년 2조 8,000억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IT 업종은 전체 순이익의 2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년에도 AI와 반도체 중심의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코스피 기업들을 보더라도 2026년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치인 410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반도체 영업이익 비중이 36%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IT 업종의 랠리를 시사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두 번째 금리(할인율)와 관련된 통화정책은 2026년 전망이 주가에 우호적(통화 완화적)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다. 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경우 기준금리 인하폭이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평가하는 시각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미국과 한국의 통화정책은 어떤 배경에서 이런 컨센서스로 모아졌을까?

코스피 기업들을 보더라도 2026년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치인 410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반도체 영업이익 비중이 36%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IT 업종의 랠리를 시사하는 부분이다.

한국보다 미국 통화정책 시계(視界)가 더욱 불투명

어느 국가든 중앙은행의 공통된 통화정책 목표는 인플레이션 안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국가별로는 미 연준처럼 '최대 고용'과 '물가안정'이라는 이중 책무(Dual Mandate)를 중요하게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나라도 있고, 한국은행처럼 물가안정(한국은행법 1조 1항)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금융안정(한국은행법 1조 2항)을 고려하는 나라도 있다. 한국은행법에 기초해서 생각해본다면 최근 국내 물가 상승률이나 내년 물가 전망치를 고려해볼 때 물가안정(2%)이라는 목표가 비교적 달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금융안정에 대해 신경을 쓴다면 최근의 부동산 가격이나 가계부채 그리고 고환율을 근거로 기준금리 동결이라는 금융시장의 컨센서스가 비교적 빨리 형성될 수 있었던 것 같다. 반면에 미 연준은 고용과 물가 중에 어떤 목표를 우선해야 하는지에 대해 주요 인사들마다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는 느낌이다. 미국 고용 지표는 둔화를 가리키고 있지만, 물가는 여전히 목표치보다 높은 수준이다. 통화정책의 궁극적 목적인 거시 안전성(Macro Prudential)을 달성하기 위해

정책의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지는 미국 경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입장 차이가 나뉠 수 있다.

미국 고용시장 둔화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상황

미 연준이 통화정책을 운용할 때 고용 지표를 물가만큼이나 중요한 판단 지표로 삼는 데에는 경기 전반(Business Cycle)을 가장 잘 대변(Proxy)하는 지표(Index)가 고용이면서도, 민간이 체감하는 가장 밀접한 지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즘 미국 경제 지표는 다소 애매모호(Ambiguous)한 감이 없지 않아 해석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 노동 수요(신규 고용자 수)는 분명 줄어들고 있는데, 노동 공급도 함께 줄어들면서 실업률은 안정적이다. 노동시장은 여전히 균형상태(Steady State)라는 것인데, 이런 현상을 새로운 균형(New Normal)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미 경기둔화를 대변하는 하나의 현상으로 해석할지는 정답이 없다. 고용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투자와 소비 측면을 보더라도 경기가 꺾이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부족해 보이고, 경기가 꺾이고 있지 않으니 물가도 쉽사리 내려오리라는 확신을 갖기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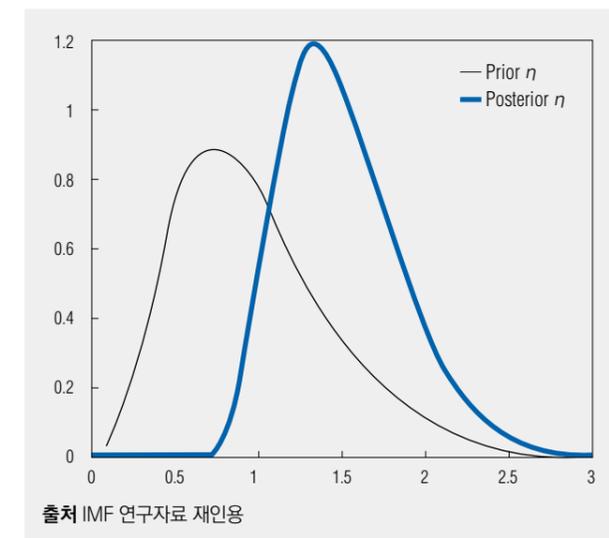
인하기 힘든 한 가지는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중립 금리 대비) 제약적인 수준'이라는 정도이고, 여기에 고용이 둔화(정확하게는 정치적 지지율에 민감한 신규 취업자 수가 둔화)되고 있으니 향후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제한적인 수준(1~2회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이라는 컨센서스로 모아지는 형국이다. 미국 기준금리가 상단을 기준으로 중립 금리에 부합하는 3.5% 정도까지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그 이하 수준까지 인하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미지의 영역이다. 통화정책의 판단 잣대 중 한 가지인 중립 금리조차 이론적 개념으로 추정된 값이기 때문이다.

AI 시대, '고용 없는 성장'이 가져온 달라진 통화정책의 잣대

이런 관점에서 최근 IMF에서 발간된 연구논문(IMF working paper, "From Servers to Rates: AI, ICT Capital, and the Natural Rate", WP/25/224)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해당 논문에서는 고용과 ICT 투자의 관계, 그리고 ICT 투자와 비용에 대한 관계를 실증분석을 통해

다루었는데, 연구 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과 ICT 투자는 코로나19 이후 상호 간의 대체탄력성이 유의미하게 높아졌으며, 둘째 코로나19 이후 Non-ICT 부분의 투자 비용은 감소했으나 ICT 부분의 투자 비용은 증가했다는 점이다. 첫 번째 결과에 요즘 현상을 비추어보면 최근 미국 신규 고용자 수 둔화 현상은 역사상 최고치를 향해가고 있는 AI 및 ICT 투자 증가로 인해 대체 관계에 있는 노동의 수요가 줄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두 번째 결과를 보면 AI 및 ICT 투자 증가로 ICT 부분의 투자 비용은 높아졌으나, Non-ICT 분야는 오히려 비용이 낮아졌기 때문에 인플레이션과 중립 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두 가지 연구 결과 모두 1990년대 후반 인터넷 붐과 함께 우리가 역사적으로 목격했던 '고용 없는 성장'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 만약 이번 AI 및 ICT 투자 사이클에서도 고용 없는 성장이 동반되는 것이라면, 그리고 이런 현상에 대한 인식이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 확산된다면 연준은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데 신규 취업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현상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미 연준의 통화정책이 고용 둔화보다는 물가안정에 방점이 찍힐 가능성)도 있다. 물론 이번 IMF에서 발간된 한 편의 연구 결과가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 단기간 내에 큰 공감대를 형성하기는 힘들 수도 있다. 하지만 AI 시대를 맞이하는 현시점에서 통화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서막일 수도 있다. 아울러 앞으로 오랜 시간을 AI와 함께 살아가야 할 세대에게는 AI로 대체되기 어려운 휴먼(Human)만의 고유한 영역이 어떤 것이 있는지 고민해봐야 하는 숙제를 안겨 준 느낌이다. ●

노동과 ICT 투자의 대체탄력성 분포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최진호
우리은행 WM상품부
Econom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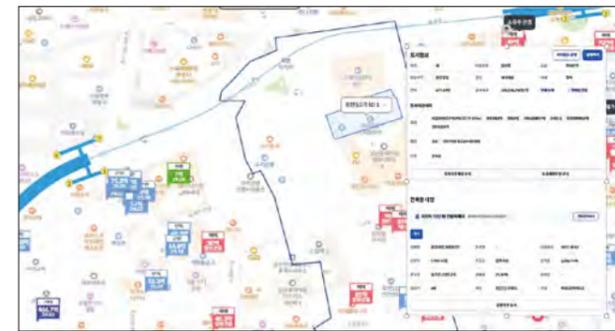
부동산 AI 추정가, 신뢰할 수 있을까

AI의 성능이 발달하면서 우리 사회 전반에 다양하게 AI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 부동산업계도 마찬가지다. AI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 부동산 플랫폼이 있지만 제시된 추정가나 미래 가치가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AI의 부동산 가치 추정 방법과 신뢰도에 대해 알아보자.

Writer_ 이선호(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부동산연구원) Photo_ 프리픽

2008년 한국부동산원에서 수습 평가사로 근무하던 시절, 부동산 실거래가를 확인하기 위해 일일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며 거래 일자과 금액을 확인했다. 실거래가 데이터는 가치 산정의 매우 중요한 자료라 거래 사례가 많이 포착될수록 대상 부동산 평가금액의 신뢰도는 더 높아졌다. 지금은 어떠한가. 부동산 플랫폼 사이트에 접속해 부동산 소재지를 입력만 하면, 디지털맵에 최근 실거래가와 매물 가격이 화면을 가득 채운다. 디지털맵에서 특정 필지를 클릭하면 해당 부동산의 거래 내역뿐 아니라 용도 지역, 이용 상황, 면적 등 기본 정보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여기에 일정 서비스까지 가입하면 AI가 친절하게 추정가를 제시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부동산 플랫폼 사이트 '밸류맵'의 디지털맵 화면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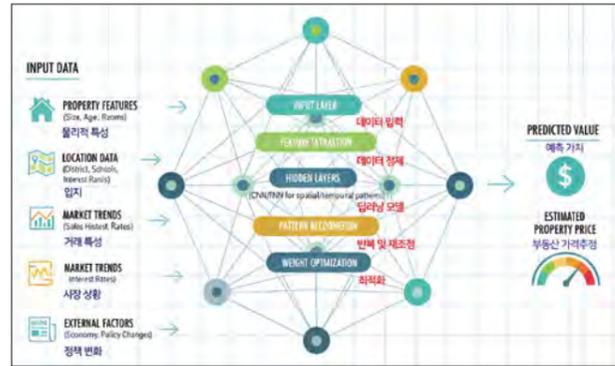
AI는 어떤 원리로 부동산 가치를 추정할까

부동산 플랫폼 사이트뿐 아니라 챗GPT 같은 생성형 AI 사이트도 부동산 주소만 입력하면 가치 추정을 받는 시대에 살고 있다. 챗GPT 사이트에 접속해 최근 자문 중인 수원 시 구도심 토지의 가치 추정을 요청해보니, 부동산 플랫폼 사이트보다는 정교함이 떨어진다. 아직은 주변의 개략적 공시지가와 실거래가를 알려주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반면 부동산 플랫폼 사이트의 AI 추정가는 해를 거듭할수록 고도화되고 있다. 데이터가 점점 쌓이고, 부동산 가치를 예측하는 모델링이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반영하면서 더욱 정교해졌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AI는 어떤 원리로 부동산 가치를 추정하는 것일까. AI 플랫폼의 가치 추정 작동 원리는 대량 수집된 데이터를 딥 러닝 같은 알고리즘에 지속적으로 입력해 부동산 가치 예측 모델을 구축한다. 그리고 이렇게 구축된 모델에 알고 싶은 부동산 소재지를 입력하면 실시간 연산으로 추정값을 산출한다. 마치 복잡다단한 매크로가 잘 장착된 엑셀로 만든 재무 모델이 거대한 부동산시장 데이터를 실시간 업데이트하며 빠르게 학습 및 연산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AI 추정가는 기술적 분석에 그치는 것으



제미나이가 답변한 AI 플랫폼 부동산 가치 추정 원리



로 보인다. 기술적 분석이란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해 미래 시세 등을 예측하는 방법인데, 주로 역사적 그래프(차트)의 추세를 분석한다. 따라서 시장의 가격 자체에만 관심을 가지고 상승 또는 하락의 추세를 예측할 뿐, 그런 가격 움직임의 원인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AI 기반 밸류에이션의 장점과 단점

부동산 AI 추정가는 계속 고도화될 것이다. 왜냐하면 부동

산 플랫폼이나 생성형 AI 회사들이 부동산업 서비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AI 기반 밸류에이션 시스템을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동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얽혀 있는 이라면 AI 추정가의 장단점을 인지하고 이를 현업에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AI 추정가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회사에서 혹은 손안의 스마트폰으로 부동산 소재지만 입력하면 몇 초 만에 답변을 얻을 수 있고, 고가의 컨설팅이나 조언을 받는 대신 저렴한 유료 구독 서비스로 대체할 수 있다. 더구나 예전과 달리 최근의 시장 동향이나 실거래가 데이터의 반영 속도가 빨라지면서 결괏값의 적시성도 많이 개선되고 있다. 머지않아 시장에 노출된 데이터는 시차 없이 즉각 반영해 효율성이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데이터의 품질이 떨어지면 AI 추정가는 신뢰도에 타격을 입는다. 데이터가 불완전하거나 편향되면 잘못된 밸류에이션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예를 들어 거래가 뜸한 지방 소재 농경지나 임야의 경우, 고가 거래된 친인척 간의 실거래 사례 하나가 전체 시세 수준에 영향을 주도할

AI 추정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동산 플랫폼

플랫폼(사이트)명	도메인	서비스 제공 내용
부동산플래닛	property.bdsplanet.com	아파트, 연립·다세대, 오피스텔 외 상업·업무용 빌딩, 토지 등 비주거용까지 폭넓게 AI 가치 추정
밸류맵	www.valueupmap.com	비주거용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 및 AI 가치 추정, 신축 사업성 검토를 위한 AI 설계와 연계
빅밸류	bigvalue.ai	AI 기반 부동산 시세·상권 분석 플랫폼 제공, 주로 금융기관 대상의 비아파트 담보가치 평가에 활용
공간의가치	vos.land	AI 추정가 맵을 통해 전국 모든 부동산의 호별·필지별 가격 추정, 금융기관 대상 가격 자문 서비스 제공
공감랩(하우스머치)	www.howsmuch.com	공동주택(빌라, 연립 특화)의 시세를 자동으로 산정할 수 있는 AVM으로 매월 고도화된 호별 시세 정보 제공
지지옥션	www.ggi.co.kr	AI 기반(ALG3.1)으로 경매 물건의 낙찰 시기와 낙찰가를 추정, 부동산 경매 정보와 분석에 특화
밸류쇼핑	www.valueshopping.land	아파트 외에도 구분상가 등 6개 부동산 유형의 AVM을 통해 자산 분석 및 세금 시뮬레이션 제공

현재까지 AI 기반 가치 추정가의 정확성을 보면 거래량이 많고
규격화된 상품, 즉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은 꽤 정확한 추정가를 보인다.
이에 반해 거래량이 매우 적고, 개별 특성이 강한 비정형 성격의 구분상가나
지방 토지 등은 갈 길이 멀어 보인다.

고리증이 작동할 수도 있다.

이처럼 대상과 유사한 지역 특성, 부동산 유형, 이용 상황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부족해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사용자의 윤리적 부분도 도마에 오를 수 있다. AI 시스템을 조작하거나, 조작하지 않더라도 입맛에 맞는 AI 결괏값을 마케팅에 악용하는 것이다. 최근 부동산 중개업인의 매각 안내 자료를 보면, 터무니없이 높게 산정된 AI 추정가를 별첨해 매각 예상가가 시세보다 싼 것처럼 착시를 일으킨다.

부동산투자시 활용 Tip

현재까지 AI 기반 가치 추정가의 정확성을 보면 거래량이 많고 규격화된 상품, 즉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은 꽤 정확한 추정가를 보인다. 이에 반해 거래량이 매우 적고, 개별 특성이 강한 비정형 성격의 구분상가나 지방 토지 등은 갈 길이 멀어 보인다. 따라서 AI 추정가를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유형은 아파트, 오피스텔, 일부 거래가 많은 도심 권역의 빌딩 등으로 판단되므로 아직은 이에 한정해 AI 추정가를 참고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렇다고 아파트나 오피스텔 AI 추정가의 신뢰도가 높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각 AI 사이트의 밸류에이션 시스템별로 분석 데이터의 품질 수준과 양, 이를 분석하는 메커니즘도 다르므로 다양한 범위의 결괏값이 도출될 수밖에 없다. 여러 플랫폼을 병용해 AI 추정가의 상한과 하한을 파

악하고, AI 추정가의 가격범위를 파악하는 것이 현명하다. 특정 플랫폼의 AI 추정가 하나를 맹신해 의사 결정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결국 투자 의사 결정은 투자자의 몫이다. 투자자 개인이 살아오면서 쌓은 지식과 경험을 통해 형성된 통찰력(인사이트)으로 부동산 가치를 판단해야 한다. 기본적 분석을 해야 한다는 얘기다. 다시 말해 좀 더 장기적 시각에서 부동산의 내재가치와 펀더멘털 등 질적 측면을 고려해 투자해야 한다.

AI 추정가는 AGI(인공 범용 지능) 단계에 이르지 않는 한, 아직은 기술적 분석에 따른 단순 참고용 가격 지표에 지나지 않는다. 혹은 나의 판단을 지지하는 검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뿐이다. 결국 나의 투자기준이 정립되지 않으면 AI 추정가는 한낱 기계에 의해 가공된 정보에 불과하다. 투자자는 AI 정보에 의존하기보다 의사 결정의 보완적 도구로 사용해야 할 것이다. ●



이선호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부동산연구원



2026년 주택 보유세,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

최근 정부의 고강도 주택 규제에도 수도권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 상승이 멈추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또 다른 부동산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중 유력한 방법이 세금을 통한 규제다. 앞으로 마주할 주택 관련 세금 변동에 따른 여러 상황을 짚어본다.

Writer_ 김성욱(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세무전문가) Photo_ 프리픽

2025년 수도권 핵심 지역 아파트가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정부의 고강도 주택 규제가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주택 가격이 잡히지 않는다면 다음 나올 정책은 세금 규제이며, 그중에서 그나마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이 주택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규제책이다.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는 대선 공약이 아직 유효하다면 손쉽게 보유세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시세 상승에 따른 주택 공시가격을 올리는 것이다. 만약 그 후 보유세를 더 올리고자 한다면 시행령을 개정(정부 승인 사항)하고 최후에는 법 개정(국회 동의 필요)도 할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보유세 증가 요인 파악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부동산 보유세를 추정해보겠다.

보유세 증가 요인 세 가지

① 주택 공시가격 상승

법률 용어는 아니지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통상 보유세라고 표현한다. 이 보유세는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을



토대로 세액을 산출한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의 69%,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시세의 53.6% 수준으로 4년째 동결했지만 2025년 내내 핵심 지역의 주택 시세가 상승한 만큼 공시가격 상승도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재산세는 2024년부터 과세표준 상한제도를 시행해 공시가격 급등에 대한 완충 장치를 가동하고 있다. 가령 전년 대비 공시가격이 10% 상승해도 재산세 과

[표 1] 서울 주요 아파트 공시가격 변동률 및 보유세 추정치

구분	전용면적(㎡)	공시가격		보유세(재산세+종부세)	
		2025년	2026년	2025년	2026년
신현대9차 (강남구 압구정동)	111	34억7,600만원	43억7,800만원	1,858만원	2,647만원
		25.9% 증가		42.5% 증가	
아크로리버뷰 (서초구 잠원동)	78	27억2,300만원	32억8,400만원	1,204만원	1,599만원
		20.6% 증가		32.8% 증가	
마포래미안푸르지오 (마포구 아현동)	84	13억1,600만원	15억1,100만원	289만원	355만원
		14.8% 증가		22.8% 증가	
서울숲 리버뷰자이 (성동구 행당동)	84	13억8,400만원	16억6,200만원	307만원	394만원
		20.1% 증가		28.3% 증가	
두산위브 트레지움 (강북구 미아동)	84	5억1,600만원	5억3,100만원	65만원	67만원
		2.9% 증가		3.1% 증가	

참조 국토부 2025년 11월 13일 및 한겨레 2025년 11월 17일 기사, 세액산출 시 가정은 확인 불가

세표준은 약 5.5%만 증가하며, 20%가 상승하더라도 6% 정도만 증가한다.

국토부는 매년 3월 공동·개별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해 4월 30일에 최종 확정한다. 2024년 대비 2025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서울 7.86%, 경기 3.16%, 인천 2.51%이며 그 외 지역은 전반적으로 감소를 나타냈다. 2025년 11월 국토부는 [표 1]처럼 2026년 서울 주요 아파트 공시가격 및 보유세 추정치를 발표했다. 공시가격의 상승만으로 강남3구(압구정동, 잠원동)는 보유세가 30~40% 상승하며, 마용성(아현동, 행당동)은 20%대 상승을 예상한 것이다.

② 주택보유세 '법' 개정 및 '시행령' 개정

'법'을 개정하려면 국회 동의를 필요하나, '시행령' 개정은 정부(대통령)의 의지만으로 가능하다. 따라서 세금 규제책이 나온다면 시행령 개정을 먼저 고려할 것이고, 그 후에도 주택 가격이 통제되지 않으면 국회를 설득해 법 개정을 시

도할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계산 구조 속에서 법 개정 사항과 시행령 개정 사항을 구별해보자.

ㄱ. 재산세 '법' 개정 또는 재산세법 '시행령' 개정

[표 2]에서 비교적 손쉽게 개정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 사항은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며, 60%가 기본값이었으나 1세대 1주택 특례가 생겨 2023년부터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 43%,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로 적용(2022년도는 45%만 적용) 하지만 1년 단위로 시행령을 연장하고 있어 언제 중단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재산세 '법'을 개정한다면 '특례 세율'을 삭제하는 정도가 유력해 보인다.

ㄴ. 종합부동산세 '법' 개정 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

[표 3]에서 비교적 손쉽게 개정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 사항은 중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며, 80%가 기본값이었으나 문재인 정

[표 2] '주택분' 재산세 계산 구조

구분	내용			개정 대상	(비교) 2021년 기준		
	과세 대상	주택 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1세대 1주택: 43~45% (표준) 그 외: 60%			[시행령]	60%만 적용	
=	과세표준	상한액 존재: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안전장치가 존재함					
x	서울	과세표준	특례 (시가표준액 9억 이하)	표준	[법]	일반 (시가표준액 6억 이하)	표준
		6,000만원 이하	0.05	0.10		좌동	좌동
		1억5,000만원 이하	0.10%	0.15%			
		3억원 이하	0.20%	0.25%			
3억원 초과	0.35%	0.40%					
=	산출세액						
-	세무담당한 초과세액	직전 연도 재산세의 105~130% 초과분			[법]	좌동	
=	납부할 세액(*)	250만원(**) 초과 시 2개월 분납 가능					

(*) 위 '납부할 세액' 외에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별도 부담
(**) 재산세+도시지역분 합계액

[표 3]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 구조_개인

구분	내용			개정 대상	(비교) 2021년 기준		
	과세 대상	주택 공시가격 합계					
-	공제금액	9억원(1세대 1주택자 12억원)			[법]	6억원(1주택자 11억원)	
x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시행령]	95%	
=	과세표준						
x	서울	과세표준	일반	3주택 이상	[법]	일반	조정 2주택 이상
		3억원 이하	0.5%			0.6%	1.2%
		6억원 이하	0.7%			0.8%	1.6%
		12억원 이하	1.0%			1.2%	2.2%
		25억원 이하	1.3%	2.0%		1.6%	3.6%
		50억원 이하	1.5%	3.0%		1.6%	3.6%
		94억원 이하	2.0%	4.0%		2.2%	5.0%
		94억원 초과	2.7%	5.0%		3.0%	6.0%
=	종합부동산세액						
-	공제할 재산세액	재산세 상당액				좌동	
=	산출세액						
-	세액공제	[1세대 1주택자만 적용]				[법]	좌동
		보유 공제		연령 공제			
		5년 이상	20%	60세 이상	20%		
		10년 이상	40%	65세 이상	30%		
	15년 이상	50%	70세 이상	40%			
-	세무담당한 초과세액	직전 연도 보유세의 150% 초과분			[법]	좌동 (조정 2주택 이상: 300%)	
=	납부할 세액(*)	250만원 초과 시 6개월 분납 가능					

(*) 위 '납부할 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별도 부담

~~~~~  
**'법'을 개정하려면 국회 동의를 필요하나, '시행령' 개정은 정부(대통령)의 의지만으로 가능하다. 따라서 세금 규제책이 나온다면 시행령 개정을 먼저 고려할 것이고, 그 후에도 주택 가격이 통제되지 않으면 국회를 설득해 법 개정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

[표 4] 시행령 개정 시 보유세 변화

공시가격 예시	재산세(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포함)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	
	개정 전(45%)	개정 후(60%)	개정 전(60%)	개정 후(80%)
10억원	203만원	296만원	0원	0원
	45.8% 증가		-	
20억원	482만원	668만원	228만원	296만원
	38.6% 증가		29.8% 증가	
30억원	761만원	1,040만원	775만원	1,112만원
	36.7% 증가		43.5% 증가	
40억원	1,040만원	1,412만원	1,538만원	2,129만원
	35.8% 증가		38.4% 증가	

부 시절 5%씩 증가해 2021년 95%까지 적용했다. 윤석열 정부 이후 2025년까지 60%를 적용하고 있으나 향후 80%를 적용할 수 있다는 기사가 잠깐 나오기도 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법'을 개정한다면 종부세 공제금액의 감소, 서울 인상(증과세율 대상 확대)이 유력해 보인다.

㉔. 시행령(공정시장가액비율)만 개정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보유세 변화[표 4]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시 45%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는데 시행령 개정으로 60%로 상향되는 경우와 세액을 비교했다. 그리고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다주택 여부 상관없이 60%를 적용하는데 시행령 개정으로 80% 적용받는 경우의 세액을 비교했다. [표 4]에서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재산세·종부세가 30%대 이상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만큼 공정시장가액비율 증가는 여파가 크다 하겠다.

③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자동 말소 예정

2018년부터 활발히 등록했던 아파트 8년 장기임대 사업자가 어느덧 자동 말소를 앞두고 있다. 요건을 갖춘 장기

임대 사업자는 그동안 재산세 감면 등과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가 있었으나 아파트는 더 이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할 수 없어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말소돼 있으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제외' 등록을 해 종부세가 증가된 고지서를 받아야 한다. 만약 제외 등록하지 않은 경우 향후 종부세 추징액과 가산세가 나올 수 있다(실무적으로 가산세 부과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

부동산 보유세 변동에 따른 대책 필요

'2025년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에 대한 TF 논의를 하겠다고 했으며, 기획재정부 장관도 '미국은 주택 보유세가 1%'를 언급했다가 급히 수습한 적이 있다. 여론의 동향을 떠나서 정부가 생각하는 방향은 보유세 증가 및 거래세 감소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조용한 증세를 위해서는 공시가격을 지속적으로 상향하고 보유세 감면 혜택 기한이 종료되면 재연장하지 않

조용한 증세를 위해서는 공시가격을 지속적으로 상향하고 보유세 감면 혜택 기한이 종료되면 재연장하지 않는 소극적인 방법과 시행령 또는 법 개정을 하는 적극적인 방법 모두를 할 수 있다.



는 소극적인 방법과 시행령 또는 법 개정을 하는 적극적인 방법 모두를 할 수 있다.

이번 내용에서는 보유세가 증가하는 쪽으로만 기술했지만, 여러 2026년 지방선거 이슈 등 정치적 이유로 당분간 급격히 올리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수많은 언론에서 접했듯 최악의 경우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말을 하고 싶다. 1주택자야 급격한 보유세 증가가 없겠지만 다주택자는 여파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보유세, 특히 종부세 납부 재원 확보가 곤란한 경우 제삼자나 가족에게 양도, 그리고 가족에게 증여하는 등 주택 수 조절을 고려해봐야 한다. 10·15 대책으로 서울과 경기도 일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뭉이면서 다주택자 증여 시 취득세 증가되는 문제와 토지 거래허가구역에서는 실거주 문제로 가족에게 양도 및 부담부 증여가 점차 곤란해지고 있어 실행 전 전문가와 꼭 상담하길 바란다. ☹



김성욱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세무전문가



기술에 취향을 담다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 리포트

미래의 금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금융권에서도 AI를 접목한 서비스가 눈에 띄게 발전하는 가운데, 지난 11월에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에서는 초개인화 금융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술이 대거 등장했다.

Writer_ 두경아 Photo_ 각 기업 제공, 게티이미지

핀테크와 인공지능^{AI}이 결합한 금융 기술의 현재와 미래가 한자리에서 펼쳐졌다.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에서는 핀테크와 AI가 결합해 선보일 초개인화 금융 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AI 기술이 대거 공개됐다.

이번 박람회의 핵심은 '핀테크×AI'였다. 금융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개인의 소비·위험 성향에 맞춰 서비스를 설계하는 기술이 전시와 세미나 전반을 관통했다. 단순 자동화를 넘어 금융이 개인의 취향과 상황을 이해하는 단계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총 99개 부스로 구성된 핀테크 전시관에서는 최신 핀테크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고, 기술 동향을 살펴볼 수 있었다. 관람객이 참여할 수 있는 AI 체험 공간을 운영했는데,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를 티셔츠에 즉석 인쇄하거나, 개인 아바타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AI 포토 부스를 마련해 초개인화 기술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AI 상담·맞춤카드·글로벌 투자 정보... 우리금융그룹이 선보인 금융 기술

우리은행은 '포용 금융' 관점에서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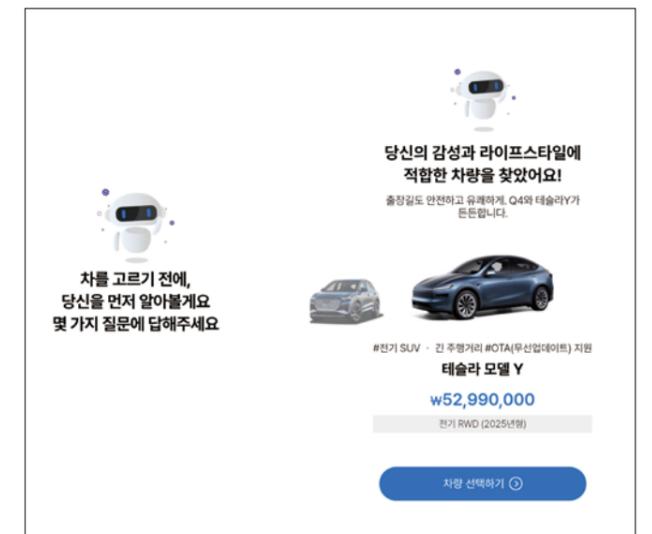


우리은행이 선보인 디지털 취약 계층을 위한 AI 키오스크

계층을 위한 AI 키오스크를 공개했다. AI 키오스크는 사용자에 따라 기기의 높낮이가 조절돼 휠체어 이용자의 사용 편의성을 높였다. 또 음성으로 대화하는 AI 어시스턴트와 업무를 연결해주는 AI 내비게이터를 통해 금융 업무의 난도를 낮췄다. 이와 함께 AI 키오스크는 AI 모니터링을 통해 보이스 피싱 등 금융 사고 예방 기능도 강화했다. 특히 AI 키오스크는 이번 행사의 주요 전시작으로 선정돼 이역원 금융위원장이 직접 시연했다.

우리금융캐피탈은 AI를 활용한 '초개인화 모빌리티 금융 서비스 PoC'를 공개했다. 고객이 운전 성향, 기대 기능, 활동 패턴, 라이프스타일 등 5단계 질문에 답변하면 AI가 이를 분석해 최적의 차량과 금융 조건을 자동으로 추천해주는 서비스다. 차량 선택부터 리스 견적 산출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금융 용어가 낯선 고객을 위해 전문 용어를 쉬운 일상 언어로 풀어 설명하는 '대화형 UX'를 적용했다. 이를 통해 계약 기간, 잔존 가치 등 복잡한 항목을 AI와 대화하며 자연스럽게 결정할 수 있으며, 최종 월 납입금은 우리금융캐피탈 내부의 공식 견적 엔진을 연동해 정확하게 자동 산출된다. 아울러 개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저장하지 않는 설계를 채택해 보안과 개인 정보 보호에도 만전을 기했다.



우리금융캐피탈이 소개한 AI 음성봇을 활용한 고객 상담 자동화 서비스



비바리퍼블리카는 안면 인식 기반 간편결제 서비스와 AI·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규 서비스를 선보였다.

AI 맞춤형 기술로 삶을 더욱 편리하게 국내 빅테크 대표 기업 솔루션

국내 빅테크 대표 기업 솔루션인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가 선보이는 기술도 주목받았다. 우선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안면 인식 기반 간편결제 서비스 ‘페이스페이’와 AI·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규 서비스를 선보였다. ‘토스 카페’ 콘셉트로 구성한 부스에서는 토스 오프라인 간편결제 기술과 출시를 앞둔 AI·데이터 기반 신규 서비스 6종을 함께 소개했다. 이들 서비스는 모두 소상공인과 개인 소비자 맞춤형으로 기획했다. 주요 콘텐츠로는 금융·생활 데이터를 분석해 생활 습관이 보험 혜택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는 ‘건강생활점수’, 신용 정보가 부족한 개인을 위한 대안 신용 점수 ‘토스스코어’ 등이 있다.

카카오페이는 생성형 AI 서비스 브랜드 ‘페이아이 pay i’와 ‘해외여행 원스톱 서비스’를 소개했다.페이아이 존에서

는 보험과 결제·카드 혜택을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시연이 이뤄졌다. 2025년 6월에 정식 출시된 ‘AI로 내 건강관리하기’는 사용자의 건강검진 데이터와 보험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질병 예측과 건강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시 보험 상담까지 연계하는 서비스다. 결제 데이터와 소비 패턴을 분석해 최적의 결제 수단과 카드 혜택을 추천하는 ‘AI로 나만의 혜택 찾기’와 항공권·숙박 예약부터 택스리펀드까지 편의를 제공하는 ‘해외여행 원스톱 서비스’도 주목을 끌었다.

네이버페이는 최근 정식 출시한 오프라인 통합 단말기 ‘Npay 커넥트’를 중심으로 비대면·오프라인 연계 서비스를 선보였다. 커넥트는 그동안 결제 후 리뷰·쿠폰 다운로드 등 온라인에서만 가능하던 기능을 매장에서 가능하도록 한 오프라인 통합 단말기다. 이 단말기는 현금·카드·QR·간편결제·NFC와 안면 인식 결제 서비스 ‘페이스사인 Facesign’까지 모든 결제 수단을 지원한다. 또한 미니 키오스크로도 활용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는 생성형 AI 서비스 브랜드 페이아이를 소개했다.



네이버페이는 통합 단말기 Npay 커넥트를 공개했다.

기발한 AI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솔루션 선보인 핀테크 기업



비대면 본인 확인 솔루션 (주)컴트루테크놀로지

안면 라이브니스와 유사도 분석을 적용한 ‘비대면 본인 확인 eKYC’ 솔루션을 소개했다. 실시간 촬영을 통해 실제 인물 여부를 판별하고, 신분증 사진의 얼굴 유사도를 분석해 동일인임을 확인한다. 이와 함께 실물 신분증 판별 솔루션도 선보였다.

AI 결제 정산 시스템 싱크플랜두

AI가 직접 결제와 정산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한 금융 인프라 시스템 AFG를 선보였다. AFG는 GPT 등 주요 AI 에이전트와 연동해 사용자의 명령에 따라 요금 조회부터 인증, 결제, 정산까지 전 과정을 가맹점·금융사 API를 통해 자동 처리하는 구조다.

손바닥 인식 결제 솔루션 (주)유니버스에이아이

얼굴 인식 기반 결제 서비스 ‘유니버스페이 UNIVS PAY’와 손바닥 인식 결제 솔루션 ‘유니버스 팜 UNIVS PALM’을 소개했다. 유니버스 팜은 손바닥 표면 패턴과 정맥을 동시에 인식하는 방식으로, 카드나 스마트폰 없이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설계한 기술이다.

모바일 환전 플랫폼 (주)커런시유나이티드

‘큐닛 Cuunit’을 통해 실시간 비딩 방식의 환전 서비스를 제공한다. 외환 판매자와 구매자를 직접 매치해 환전 수수료 부담을 줄였으며, 일정 시간 내 거래 취소가 가능한 보호 환율 기능을 도입했다.

AI 기반 환경 금융 플랫폼 (주)후시파트너스

AI 기반 탄소 관리·탄소 금융 통합 플랫폼 ‘카본 AI Carbon AI’를 소개했다. 이 플랫폼은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과 감축, 규제 대응을 위한 MRV는 물론, 배출권 확보와 거래까지 포함한 MRVC 전 과정을 지원한다. 기업과 기관의 탄소 관리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복수 카드 동시 결제 솔루션 앳원스

‘캔디페이 CandyPay’를 선보였다. 한 번의 결제 과정에서 여러 카드를 조합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는 카드 혜택 활용도를 높이고, 소상공인은 결제 처리 부담을 줄일 수 있다.

AI 기반 부동산 분석 솔루션 (주)바로코퍼레이션

‘바로홈 BALAW HOME’을 소개했다.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진단하고, OpenAPI 연계를 통해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부동산 법률에 특화된 RAG 기반 챗봇을 제공해 법률 관련 질의에 대응하며, 데이터와 커뮤니티 기능을 통해 정보 활용도를 높였다.

내부 비위 의심 거래 탐지 솔루션 민이앤아이 주식회사

기업 자금과 관련한 횡령·배임 등 내부 비위 의심 거래를 탐지하는 소프트웨어 ‘갯추 GotChoo’를 개발했다. 이 솔루션은 은행, 카드사, 국세청, 공적보험 기관 등에서 수집한 기업 정보와 금융 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거래 내역을 모니터링한다. 의심 징후 발생 시 모바일 메시지와 이메일로 즉시 알림을 제공한다. ●



for Readers

〈TWO CHAIRS〉에 보내주시는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매번 날카로운 지적과 좋은 제안을 해주시는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해
나날이 발전하는 〈TWO CHAIRS〉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TWO CHAIRS〉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설문 조사에 참여해주세요.
〈TWO CHAIRS〉에 대한 만족도와 매거진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독자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측의 QR코드를 촬영해
설문 조사에 접속한 후 양식에 맞게 내용을 기입해주세요.
설문에 응답한 후 제출까지 누르면 완료됩니다.
설문 조사에 참여하신 분 중 두 분을 선정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설문조사 바로가기

Special Gift



파나소닉 페이스 스티머 EH-XS01(2명)

참여 방법 QR코드 촬영 후 양식에 맞게 작성 및 제출

참여 기간 2026년 1월 16일(금)~2월 27일(금)

당첨자 안내 개별 통보

- ※ 당첨자에게는 선물을 우편으로 일괄 발송해드립니다.
- ※ 잘못된 개인 정보 입력으로 인해 당첨자에게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상품이 반송될 경우 재발송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손실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 재고 수량에 따라 상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TWO CHAIRS〉를 모바일과 온라인에서도 자유롭게 즐기세요.

TWO CHAIRS 모바일 웹진
스마트폰으로 우측 QR코드를 스캔하면 우리WON뱅킹(App)으로 연결됩니다.
우리WON뱅킹 → 전체메뉴 [생활 혜택] → TWO CHAIRS → TWO CHAIRS 웹진
[TWO CHAIRS웹진] 배너 상단 구독하기를 신청하시면 매월 첫째주, 업데이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TWO CHAIRS 온라인 웹진
www.wooribank.com → 전체 메뉴 → 투체어스PB → TWO CHAIRS 웹진



WON뱅킹 바로가기

Welcome to TWO CHAIRS

TWO CHAIRS 특화센터

TWO CHAIRS W, TWO CHAIRS Exclusive 센터는 우리은행의 고품격 자산관리 전문센터입니다.

TWO CHAIRS W

청담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731(청담동) 신영빌딩 6층	T. 02-511-4909(내선 455, 510, 512)
도곡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806(도곡동) 군인공제회관 21층	T. 02-501-1639(내선 513, 530)
센트럴시티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176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1층	T. 02-3482-6586
압구정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416(청담동) 트리니티플레이스빌딩 4층	T. 02-518-6135(내선 311, 312)
여의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 여의도 TP타워 19층	T. 02-6373-2200(내선 212, 213)
부산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120(우동) 4층	T. 051-741-3625(내선 213, 214)
송도	인천시 연수구 하모니로177번길 49 형지글로벌패션복합센터 제1동 15층 15호	T. 032-858-3692(내선 311, 313)



TWO CHAIRS W 도곡

TWO CHAIRS Exclusive

본점센터	서울시 중구 소공로 51(회현동1가) 우리은행 본점 1층	T. 02-2002-3316(내선 3312, 3367)
강남센터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08(역삼동) GS타워 6층	T. 02-508-3456(내선 310~314)
시그니처센터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11(서초동) GT타워 24층	T. 02-562-7964(내선 405, 406)

TWO CHAIRS 전문 서비스

자기진단, 금융투자, 세무/부동산, 은행/노후설계 등 우리은행 TWO CHAIRS 특화센터와 함께
다양한 금융서비스 혜택을 받아보세요.

자산관리 자문서비스
금융시장 분석과 포트폴리오 제안, 은퇴와 노후설계 솔루션 제공, 듀얼케어 자산관리서비스 등

세무 자문서비스
자산의 보유와 매도(증부세, 양도세), 자산이전(상속·증여세), 기업승계 포함 법인 관련 세무자문 등

부동산 자문서비스
부동산 투자정보 분석, 부동산 매수 및 매도자문, 보유 부동산 진단을 통한 케어 특화서비스 제공 등

TWO CHAIRS는 우리은행의 역사와 전문성이 만나 탄생한 우리은행 프라이빗 뱅킹 브랜드입니다.

당신만을 위한 1:1 맞춤 자산관리
우리은행 TWO CHAIRS

“자산관리, 믿고 앉아만 있으면 돼”

오직, 당신에게만 집중하는
전문가의 안정적인 1:1 자산관리를 만나보세요.

자산관리의 A TO Z TWO CHAIRS



전문가의 안정적인 1:1 자산관리, TWO CHAIRS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

고객별 자산현황과 투자성향에 따른
포트폴리오 추천 및 채무, 부동산 분야
전문가 상담 지원

TWO CHAIRS 기본서비스

전용 상담공간, 대여금고 서비스,
시크릿뱅킹 서비스,
해외 유약 이주 상담 지원, TWO CHAIRS 매거진

TWO CHAIRS 특화서비스

호텔, 다이닝,
한우 배송, 가전, 꽃머니 등

※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는 가까운 영업점 전담직원에게 문의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 TWO CHAIRS 기본서비스는 우리은행 TC등급 이상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이며, 영업점 사정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TWO CHAIRS 특화서비스는 금융거래 현황에 따라 선정되는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로, 은행 사정에 따라 서비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 또는 우리은행 고객센터(1588-5000, 상담가능시간: 평일 9:00~18:00/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불가)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5-0818(2025.01.31~2026.02.28)